三綱行實 中

忠臣

三綱行實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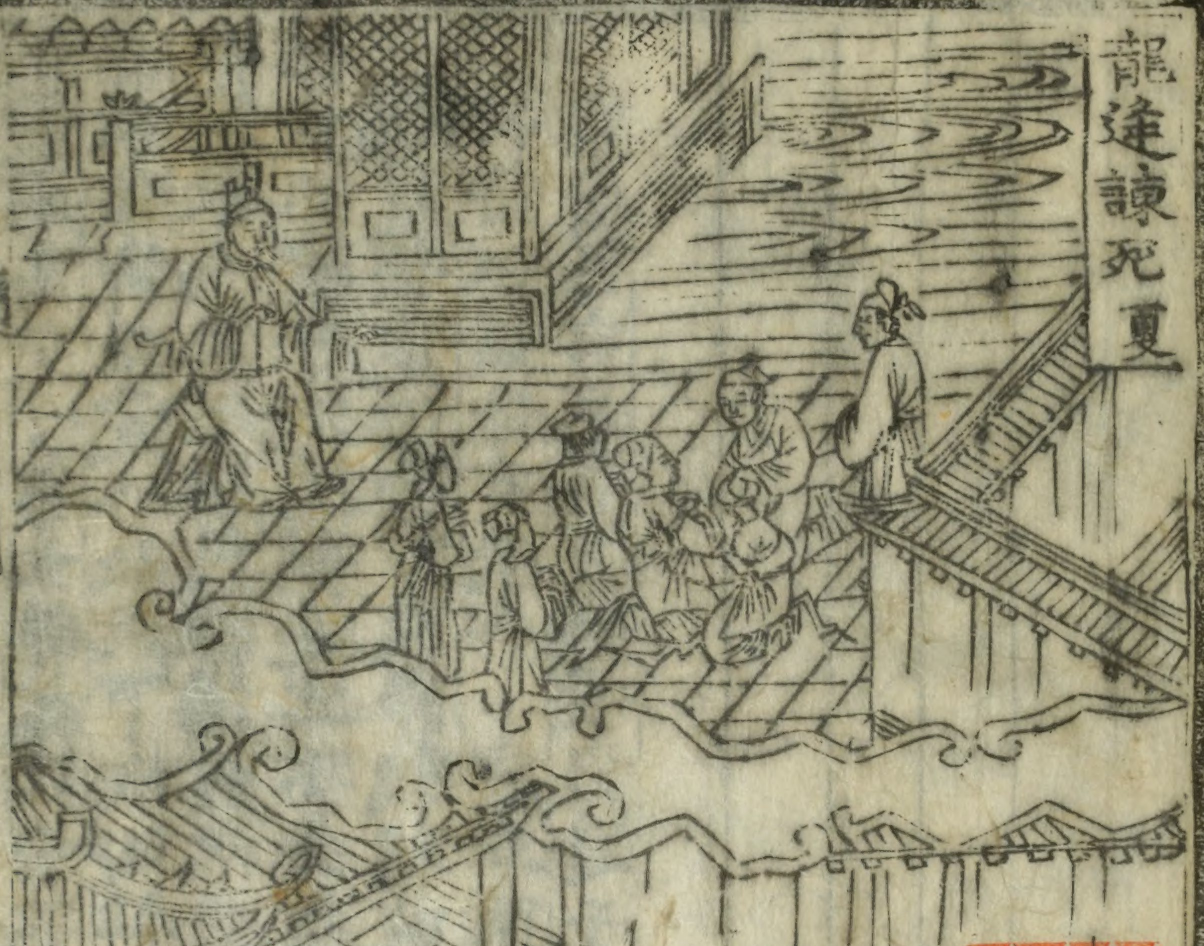
忠臣

龍逢諫死 一
欒成鬪死 二
石碏純臣 三
王蠋絶脰 四
紀信誑楚 五
蘇武杖節 六
朱雲折檻 七
龔勝推印 八
李業授命 九
嵇紹衛帝 十
卞門忠孝 十一
桓彝致死 十二
顔袁罵賊 十三
張許死守 十四
張興鋸死 十五
秀實奪笏 十六

演芬快死 十七　若水效死 十八
劉韐捐生 十九　傅察植立 二十
邦乂書襟 二十一　岳飛涅背 二十二
尹穀赴池 二十三　天祥不屈 二十四
榜得茹蔬 二十五 新印本不食　和尚噀血 二十六
絳山葬君 二十七　蝦蟆自焚 二十八
普顏全忠 二十九　堤上忠烈 三十
丕寧突陳 三十一　鄭李上疏 三十二
夢周隕命 三十三　吉再抗節 三十四
原桂陷陳 三十五

은나라님금걸튜이
사오나와모ᄉᆞᆷ파
어모은집을믜울
교남비ᄒᆞᆫ뒤이셔
쳐돌흘뇨희받치
아니ᄒᆞ니봉방이
관ᄒᆞ야줄오뒤님
금되ᄂᆞᆫ재공결ᄒᆞ
고조심ᄒᆞ며졀믈
을존졀ᄒᆞ고사ᄅᆞᆷ
을ᄉᆞ랑ᄒᆞᄂᆞᆫ고로
텬해평ᄒᆞ고샤직
을보젼ᄒᆞᄂᆞ니이
졔군은그리치아
니ᄒᆞ야져믈ᄡᅳ기
ᄅᆞᆯ호이엽시ᄒᆞ고
사ᄅᆞᆷ주기믈무수
히ᄒᆞ니뵈셩이소

三綱行實忠臣圖



龍逢諫死 夏

적군이티뢰죽으
가렴여ᄒᆞᄂᆞᆫ지라
인심이ᄇᆡ반ᄒᆞ고
텬명이돕지아니
ᄒᆞ거ᄂᆞᆯ엇지조곰
도고치지아니ᄒᆞ
ᄂᆞ뇨걸이듯지아
니ᄒᆞ거ᄂᆞᆯ룡빙이
셔고가지아니ᄒᆞ
니걸이룡방을주
기니라

桀鑿池為夜宮男女雜處三旬不朝關龍逄諫曰人君謙恭敬信節用愛人故天下安而社稷宗廟固今君用財若無窮殺人若不勝民惟恐君之後亡矣人心已去天命不祐盍少悛乎不聽龍逄立不去桀殺龍逄

詩 夏桀荒淫毒下民弗親朝政至三旬輕生極諫言詞切得似龍逄有幾人
廷立陳辭冀小悛如何不聽殺忠賢民言曷喪眞堪畏自道予生命在天

진나라곡옥무공
이익의애후를취이ᄒᆞ
를주기고난셩을
잡아닐ᄋᆞ되주지
말라내너를뵈옷
상경을삼아진
국졍ᄉᆞ를맛알
게ᄒᆞ리라난셩이
ᄃᆡᄒᆞ여ᄀᆞᆯᄋᆞ되나
는들으니ᄇᆡᆨ셩이
세곳의살아셤기
를ᄒᆞᆫ골ᄀᆞᆺ치ᄒᆞ다
ᄒᆞ니아비나ᄒᆞ시
고스승이ᄀᆞᄅᆞ치
고님금이머기시
니아비아니면나
지못ᄒᆞ고밥이아
니면ᄌᆞ라지못ᄒᆞ

고ᄆᆞᄅᆞ치지아니
면알옴이업ᄂᆞᆫ고
로ᄒᆞᆫ골ᄀᆞᆺ치셤겨
죽기ᄅᆞᆯ닐위ᄂᆞ니
날살오니ᄂᆞᆫ죽기
로ᄇᆡ갑고날주ᄂᆞ
니ᄂᆞᆫ힘으로ᄇᆡ갑
ᄒᆞ미사ᄅᆞᆷ이도리
니내엇지니ᄅᆞᆯ람
ᄒᆞ야사ᄅᆞᆷ의도리
ᄅᆞᆯ폐ᄒᆞ리오ᄒᆞ고
ᄆᆞ득ᄡᅡ화죽으니
라

曲沃武公伐翼殺哀侯止欒共子曰無死吾以子爲上卿
制晉國之政辭曰成聞之民生於三事之如一父生之師
教之君食之非父不生非食不長非教不知生之族也故
一事之唯其所在則致死焉報生以死報賜以力人之道
也成敢以私利廢人之道遂鬪而死

詩 武公伐翼殺哀侯止亚欒成待欲優縱受上卿專國
政其如不共戴天讎 君師自古生之族所在准雍以
死剛大義胷中曾識得肯將私利爲身謀

우환공의쳡하믈
쥬위환공을죽이
교스ᄉᆞ로셔니빅
셩이화치아니ᄒᆞ
는지라셕작의아
들셕후착ᄒᆞ려ᄒᆞ
리ᄅᆞᆫ오되엇지ᄒᆞ
면님금을뵙ᄒᆞ리
잇가작이ᄀᆞᆯ오되
가치텬ᄌᆞ씌뵈올
지니즉금진환공
이텬ᄌᆞ의ᄉᆞ랑ᄒᆞ
이고우리나라히
면환공파됴ᄒᆞᆫᄉᆞ
이니네쥬우와ᄒᆞᆷ
가지로딘의가던
환공쳥ᄒᆞ여텬ᄌᆞ
씌알외셔달라ᄒᆞ
라ᄒᆞ쥬우로더브
러딘스로가거ᄂᆞᆯ
셕작이마나사
롬을딘환공씌보

내어ᄆᆞᆯ오ᄃᆡ이두
사ᄅᆞᆷ이우리님금
을주겨시니쳥컨
대원슈ᄅᆞᆯ갑하지
라ᄒᆞᆫ대환공이잡아
가도고위ᄉᆞ사ᄅᆞᆷ두
려와주기라ᄒᆞᆫ대
위지취츄ᄅᆞᆯ보내여
쥬우ᄅᆞᆯ주기고뎌
지어또졔하인을
보내여그아ᄃᆞᆯ후
ᄅᆞᆯ주기니군ᄌᆞ닐ᄋᆞ
ᄉᆞᄃᆡ석작은츙슌
호신해라큰의로
지친을멸ᄒᆞ다ᄒᆞᆷ
은이ᄀᆞᆺ을닐ᄋᆞᆷ이
로다ᄒᆞ더라

州吁弑桓公而立未能和其民石碏子厚問定君於石碏
碏曰王覲爲可曰何以得覲曰陳桓公方有寵於王陳衛
方睦若朝陳使請必可得也厚從州吁如陳碏使告于陳
曰衛國褊小老夫耄矣無能爲也此二人者實弑寡君敢
卽圖之陳人執之而請涖于衛衛人使右宰醜涖殺州吁
于濮碏使其宰獳羊肩涖殺石厚于陳君子曰石碏純臣也
惡州吁而厚與焉大義滅親其是之謂乎

詩 家兒嘗戒莫從遊　幸聞和民與定君　國小終能寧有
老勸令王覲是奇謀　陳人討賊是誰因　老子謀謨勤
四隣大義滅親知　欲識請看靑史記純臣

왕쵹은졔나라획읍
사ᄅᆞᆷ이라연나라쟝
슈악의졔나라ᄅᆞᆯ쳐
파ᄒᆞ고왕쵹의어
질믈듯고군듕의령
ᄒᆞ여획읍삼십니ᄅᆞᆯ
둘너침노치말라ᄒᆞ
고사ᄅᆞᆷ으로ᄒᆞ여곰
쵹을쳥ᄒᆞ오대쵹이사
례ᄒᆞ고가지아니ᄒᆞᆫ
대연사ᄅᆞᆷ이ᄀᆞᆯ오ᄃᆡ
오지아니ᄒᆞ면획읍
을즌ᄃᆡ히리라쵹이
ᄀᆞᆯ오ᄃᆡ튱신은두님
금을셤기지아니ᄒᆞ
고렬녀ᄂᆞᆫ두지아비
ᄅᆞᆯ고치지아니ᄒᆞᄂᆞ
니졔왕이내간ᄒᆞᄂᆞᆫ

갈을쓰지아니ᄒᆞᄂᆞᆫ
고로므리와들히쉬
밧갈아먹고잇더니
이제나라히파ᄒᆞ고
님금이망ᄒᆞ여시니
내능히사지못ᄒᆞᆯ예
다이제위엄으로ᄲᅢ
헙박ᄒᆞ고뎌ᄒᆞᄂᆞ니내
의아니ᄒᆞᆫ되살기로터
브러ᄒᆞ나아리쥭음만
ᄀᆞᆺ지못ᄒᆞ다ᄒᆞ고그
목을남기ᄆᆡ고스스
로ᄂᆞ리지니목이ᄭᅳᆫ
허져죽으니라

燕樂毅破齊聞畫邑人王蠋賢令軍中環畫邑三十里無
入使人請蠋蠋謝不往燕人曰不來吾屠畫邑蠋曰忠臣
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齊王不用吾諫故退而耕於野
國破君亡吾不能存而又欲劫之以兵吾與其不義而生
不若死遂經其頸於樹枝自奮絕脰而死

詩 燕人圍畫邑屠城節士安能枉己行不事二君當日
語凜然千載樹風聲 君亡國破不能存非義而生豈
是論經死樹間方自慊千秋地下作忠魂

항우영양을에워
ᄡᆞ거ᄂᆞᆯ한왕이화
친을쳥ᄒᆞ되듯지
아니ᄒᆞ니왕이근
심ᄒᆞ시쟝군긔신
이ᄀᆞᆯ오ᄃᆡ일이급
ᄒᆞ엿ᄂᆞᆫ지라신이
쳥컨대초사ᄅᆞᆷ을
소길ᄊᆡ니왕은ᄉᆞ
잇길로도라나쇼
셔ᄒᆞ고이예단평
이밤의녀ᄌᆞ이쳔
여인을ᄊᆡ동문으
로내여보내여ᄲᆞ
홈ᄒᆞ며ᄎᆞᄂᆞᆫ톄ᄒᆞ
니초나라군시ᄉᆞ
면으로티거ᄂᆞᆯ신
이이예왕의수리

紀信誑楚 漢

홀뮤고좌편의두
흡취위남곰의거
동올ᄒ고동문으
나와날오뒤형
외군량이펍졀
ᄒ여시니딘몰길
취엽ᄉ찬양이초
의항복ᄒ노라ᄒ
대초군이다만셰
를브루고칭ᄒ문
으로못ᄊ놀이소
이예왕이수십긔
를거ᄂ리고ᄉ문
으로나ᄃ으로ᄃ
라나니항우속은
ᄒ를본ᄒ야긔신
을블의숣와주이
니라

項羽圍滎陽王請和割滎陽以西為漢范增勸羽急攻滎
陽王患之將軍紀信曰事急矣臣請誑楚則王可以間出
於是陳平夜出女子滎陽東門二千餘人楚因四面擊之
信乃乘王車黃屋左纛曰城中食盡漢王降楚楚皆呼萬
歲之城東觀以故王得與數十騎從西門出走成皐羽燒
殺信

詩 漢王當日被圍困事急向人辭指麾不有將軍誑詐
楚陳平雖智計無施　攀龍附鳳幾英雄黃屋生降為
沛公帝業綿綿基此舉蕭何不是漢元功

한무뎨ᄯᅢ예듕낭장소
위오랑캐게ᄉᆞ신으로
들어가니오랑캐무롤
항복밧고져ᄒᆞ여쥐히
며발애기롤빅가지로
ᄒᆞ뒤귀표픔도동치아
니ᄒᆞ오대이예무롤디함
ᄯᅮᆨ의가도고음식을ᄭᅳᆫ
지아니ᄒᆞ니이ᄯᅢ겨울
이라뮈ᄂᆞᆫ올긴의티교
킈예붓흔러릭을ᄇᆡ
버솜씨니두어날을죽
디아니ᄒᆞ니지라마시
북ᄒᆡ우희사룸업슨ᄯᅡ
의옮기고수양을먹여
치ᄀᆡᄒᆞ고ᄯᅩ되수양
이삿기휘야노하보내
리라ᄒᆞ니뮈며을ᄭᅢ시
ᄀᆞ拔ᄒᆞᆯ회쥐굼글파구
무속의쥐날나두엇ᄂᆞᆫ
플ᄡᅵ를먹고한나라

쿨을잡고누오나니안ᄌᆞ
나노치아니ᄒᆞ니지ᄅᆞ되
다ᄉᆡ리지티라오랑과
니룰쉬새은오한나라향이부라사로ᄒᆞ랑캐ᄡᆞ
무ᄅᆞᆯ달내여니무되비
노비록ᄒᆞᆫ을위ᄒᆞ나비
어미와형뎨쳐ᄌᆞ다죄
에족어시니한이브롤
커ᄇᆞᆯ틴ᄂᆞᆫ지라세절을
여ᄒᆡ여무엇ᄒᆞ리ᄒᆞ논
다안싱이맛츰이슬ᄀᆞᆺ
ᄃᆞ니잠간쥴ᄒᆞ여ᄲᅮ귀
롤누리미엇티ᄒᆞ요뮈
골오ᄃᆡ내ᄉᆞᆷ의죽기를
뎡ᄒᆞ여시니뎌다항복
밧고져ᄒᆞ거든날을죽
시라ᄒᆞ대녀믈이참피
ᄒᆞ야도타갓ᄃᆡ니무춤
내무믈노하보내니라

中郎將蘇武使匈奴會虞常謀殺衛律單于使律治之常
引武副張勝知謀召武受辭武引刀自刺律驚自抱持之
武氣絶半日復息律謂武曰副有罪當相坐武曰本無謀
又非親何謂相坐舉劍擬之武不動乃幽武大窖中絶不
飮食武齧雪與旃毛并咽之徙北海上使牧羝掘野鼠去
草實而食杖漢節牧羊臥起操持節旄盡落單于使李陵
置酒謂曰足下兄弟皆坐事自殺太夫人已不幸婦亦更
嫁人生如朝露何自苦如此武曰臣事君猶子事父子爲
父死無所恨願勿復言陵與飮數日復曰一聽陵言武曰
自分已死人矣必欲降請効死於前陵去及匈奴亂乃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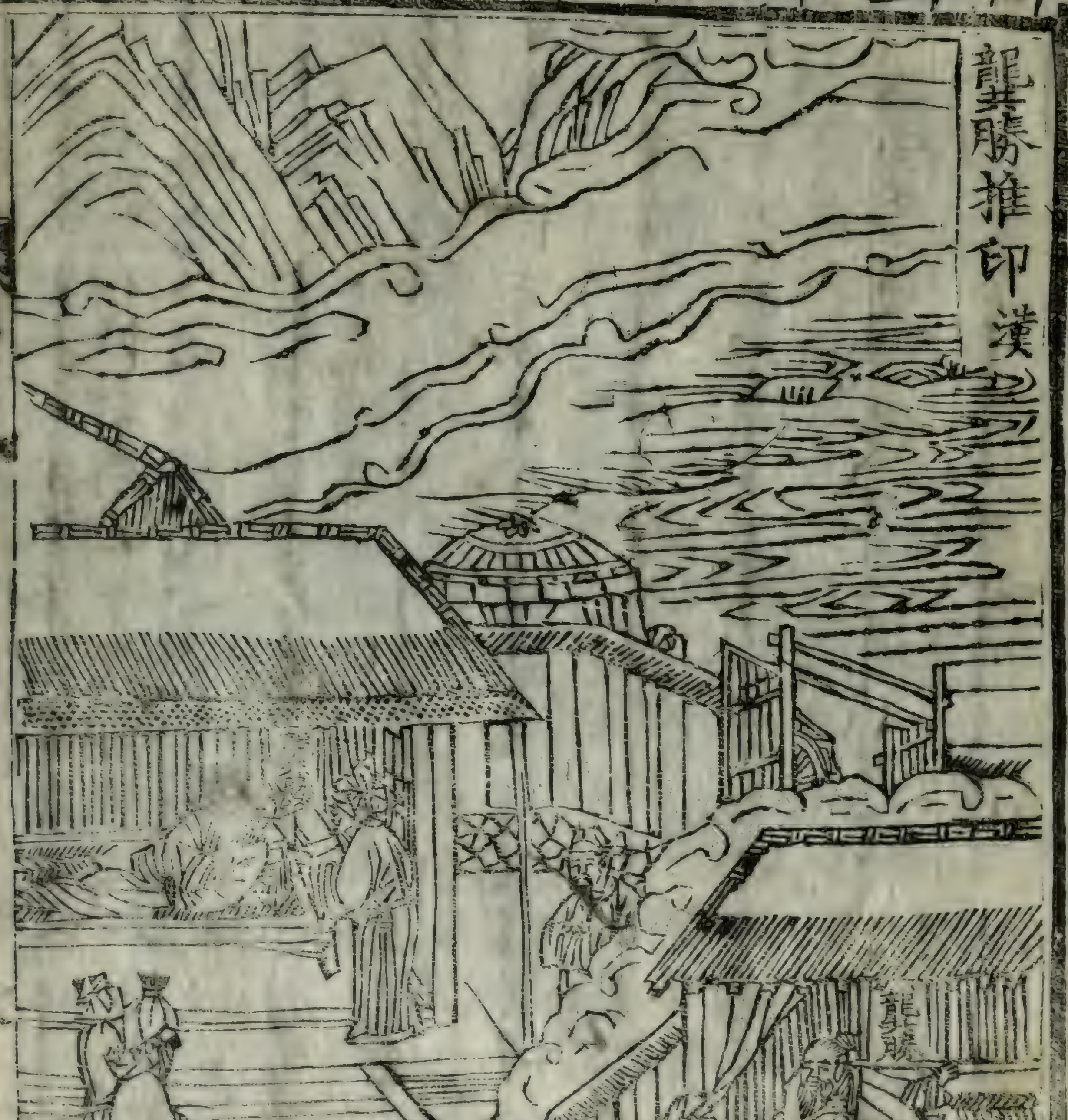
詩 初承帝命使匈奴那料虞陸皆被拘强引受辭終不
屈堪嗟自刺絶還蘇 牧羝掘鼠歷多艱杖節持旄
尙閑不聽陵言期數死要知後日得生還

ᄒᆞᆫ셩뎨대예쟝ᄉᆞ이
만ᄒᆞ니사ᄅᆞᆷ마다샹
소ᄒᆞ여닐오되나라
외쳑이권을잡은라
시라ᄒᆞᆫ대샹이ᄯᅩᄒᆞᆫ
의심ᄒᆞ사승샹댱우
ᄃᆞ려므ᄅᆞ시니댱위
외쳑의믜이일ᄲᅡ셔
허ᄒᆞ당ᄒᆞ여골오뎌
답변이라ᄒᆞ읍ᄂᆞᆫ거
손깁고멀어ᄒᆞᆫ일
로난줄을알기··협
ᄉᆞ온거슬쥐믄텬벼
둘이일을모로고외
텩의다시라ᄒᆞ니맛
지마ᄅᆞ쇼셔ᄒᆞ니샹
이그리히티기셔티
니피리텽벼ᄉᆞᆯ쥬운
이넘금게뵈와골오
디됴텽대신이다밥
만먹고체직힐을출
히디못ᄒᆞ오니윤권
내샹방의ᄆᆞᆯ버히ᄂᆞᆫ
갈ᄒᆞᆯ주시든간사ᄒᆞᆫ

션차의머리ᄒᆞ나흘
버히고남으너ᄅᆞᆯ딩
계ᄒᆞ여지이다상이
무루더노ᄅᆞᆯ버히려
ᄒᆞ노다운이ᄭᅳᆯ오되
당ᄉᆞ로소이다ᄒᆞ나
다ᄋᆞ유나샤의스승으
로피에눈신해라샹
이대로ᄒᆞ여ᄭᅳᆯ오되
조고만신해내스승
을욕ᄒᆞ니야다가
죡이라어서운을잡
아ᄂᆞ리오거ᄂᆞᆯ운이
난간을잡으니난간
이블어진지라크게
ᄎᆞ리ᄒᆞ여ᄭᅳᆯ오되신
이디하의가룡방과
비간을조차놀미족
ᄒᆞ도소이다ᄒᆞ대상
의ᄯᅳᆺ이조ᄭᅳᆷ플리어
죄을샤ᄒᆞ고후의그
난간을못칠시샹이
ᄀᆞᆯ오ᄃᆡ밧고디말고
신ᄒᆞ이ᄀᆞᆺ쳐ᄭᅮ뮤의
되신신쥴을표ᄒᆞ다

張禹以天子師國家大政必與之議時吏民多言災異王
氏專政所致成帝然之乃至禹第問以天變因用吏民言
王氏事示禹禹自見年老子孫弱又與王根不平恐爲所
怨謂上曰災變之意深遠難見陛下宜修政事以善應之
新學小生亂道誤人宜無信用上雅信禹由是不疑朱雲
求見曰朝廷大臣皆尸位素餐願賜斬馬劍斷佞臣一人
頭以厲其餘上問誰對曰張禹上大怒曰小臣是辱師傅
罪死不赦御史將雲下雲攀殿檻折雲呼曰臣得從龍逢
比干游足矣御史遂將雲去將軍辛慶忌免冠叩頭流血
爭上意解得已後當治檻上曰勿易因而輯之以旌直臣
詩 災異雖云降自天實由王氏久專權奈何張禹依阿
甚廷辱當時氣凜然 誠心請斬佞人頭擬與逄干地
下遊治檻畱時令勿易是知讜言臣所

한평뎨ᄯᅢ에왕망이
권을잡아칠ᄉᆞ로어
ᄌᆞ리이나맏도ᄀᆞ태우
공승이근심ᄒᆞ고분
ᄒᆞ야벼ᄉᆞᆯ을ᄇᆞ리고
고향의도라갓더니
왕망이한나라ᄒᆞᆯ찬역
ᄒᆞ고창ᄐᆡ되야공승
을산ᄒᆡ삼고져ᄒᆞ여
ᄉᆞ쟈ᄅᆞᆯ보내여벼ᄉᆞᆯ로
브ᄅᆞᆯ서ᄉᆞ재문의니
ᄐᆞ리공승으로ᄒᆞ여
곰나와ᄌᆞ쳐ᄅᆞᆯ벗으
라ᄒᆞ거ᄂᆞᆯ승이병들
나실굿고나오지아
니ᄒᆞ니ᄉᆞ재드리가
ᄌᆞ쳐ᄅᆞᆯ틴ᄒᆞ고인을
갓다가승의몸의너
여거ᄂᆞᆯ승이밀쳐고
밧지아니ᄒᆞᆫ대ᄉᆞ재
주더못ᄒᆞ여승의아
ᄃᆞ리화복으로ᄇᆡ



저허고달래여니르
나조와파티즈들이그
블로배승두리블
대승이몯오되내한
나라두리온은혜를
닙어갑흐미업고이
제나히늘것는지라
엇뎌호몸으로배두
님금을셤기고다하
의가여녯님금을보
리오호고인호야판
팍팍영장홀귀슬홀
히고다지밥을먹지
아니호여열나흘만
의죽으니나히칠십
구쉐러나

光祿大夫龔勝以王莽秉政乞骸骨歸鄉莽旣簒位遣使奉璽書太子師友祭酒印綬安車駟馬迎勝卽拜使者與郡縣長吏八里致詔使者欲令勝起迎久立門外勝稱病篤使者付璽書進曰聖朝制作未定待君爲政勝曰素愚加以老病命在朝夕隨使上道必死道路使者要說以印綬加身勝輙推不受使者爲勝兩子及門人高暉等言朝廷虛心待君以茅土之封雖疾病宜移至傳舍示有行意必爲子孫遺大業暉等白之勝曰吾受漢家厚恩無以報今年老朝暮入地誼豈以一身事二姓下見故主哉因敕棺斂喪事語畢遂不復飮食積十四日死年七十九

詩 新室方興國柄移乞歸鄉里是其宜兗稱病篤無行意何用安車駟馬爲 身加印綬禮雖勤臣子何心事二君絶粒旬餘仍不起聞風孰不得清芬

니ᄋᆞᆫ촌나라져
동사ᄅᆞᆷ이라실ᄒᆞᆷ
금텬ᄒᆞ여벼ᄉᆞᆯᄒᆞ
더니왕망이금궤
ᄒᆞ매벼들뵈실고
고산듕의숨엇더
니왕망이망ᄒᆞ니
예한나라ᄡᅳ실셰나
고공손술이ᄎᆞᆷᄌᆞ
군ᄉᆞ로니르혀촉
의웅거ᄒᆞ야항ᄋᆡ
ᄅᆞ라실ᄀᆞ쇼니엽
을신칙ᄒᆞᆫ고칭ᄒᆞ
여ᄉᆞ자를보내여
블ᄋᆞ여니ᄅᆞ되오
지아니ᄒᆞ면독약
을먹셰쥬이라ᄒᆞ
니ᄉᆞ재니르되하
복ᄉᆞ로뉘ᄒᆞ며달
래여디르니업이
리ᄒᆞ야돌ᄋᆞ뒤위
ᄒᆡᄒᆞ라ᄒᆞᆫ드

리가지아니ᄒᆞ고
여조리온나라ᄒᆡ
로사디아니ᄒᆞ다
ᄒᆞᄂᆞ니내리ᄒᆡ화
ᄆᆞᄅᆞᆫ미오리로다ᄒᆞᆫ
지위를ᄒᆞᆫ숨드ᄒᆡ
몸을빈일ᄒᆞ이니
엇지배ᄉᆞᆯ을말ᄒᆞ
야블의를조ᄎᆞ리
오ᄒᆞᄂᆞᆫ대쇼재ᄅᆞᆫ오
되그뒤ᄌᆔ조와의
는ᄒᆞᄂᆞᆫ보라업이
몰오리닷뵈ᄂᆞᆫ옴
이블단ᄒᆞ엿ᄂᆞ니
여세ᄎᆔ조와의ᄂᆞᆫ
ᄒᆞ니오ᄒᆞ고약을
먹고죽으니라

李業梓潼人 元始中舉明經除爲郎王莽居攝以病去官
隱藏山谷終莽之世公孫述僭號素聞業賢徵之欲以爲
博士業固疾不起述使尹融持毒酒奉詔以劫若起則受
公卿之位不起賜之以藥融譬旨曰方今天下分崩孰知
是非朝廷貪慕名德曠官缺位宜上奉知己下爲子孫身
名俱全不亦優乎今數年不起猜疑寇心凶禍立加非計
之得者也業乃歎曰危國不入亂國不居親於其身爲不
善者義所不從君子見危授命何乃誘以高位重餌哉融
見業不屈曰宜呼室家計之業曰丈夫斷之於心久矣何
妻子之爲遂飮毒而死

詩 明經應舉擅才名 漢室除郎亦至榮 告疾休官終莽
世 公孫豈得餌公卿 天下分崩孰是非 尹融譬旨諭
貽譏 丈夫固自由心斷 妻子焉能校指揮

혜쇼ᄂᆞᆫ진혜뎨ᄯᅢ
시듕벼ᄉᆞᆯᄒᆞᄂᆞᆫ사ᄅᆞᆷ
이라ᄉᆞ매예항래뎨영
이반역ᄒᆞ니도뎐신
혜뎨뎌ᄇᆡᆨ을어영
슬ᄒᆞᆯᄉᆡᄒᆞ쇼ᄯᅩ호남
금을뫼셔ᄯᅥ나시늉
신쇼이노셩의당이
리쇼뎌날려조오
니그듸의게ᄯᅩᄒᆞᆫ몰오
이엇ᄂᆞ냐ᄒᆞ고번즈
시돌하나과ᄎᆔᄒᆞᄂᆞᆫ
ᄃᆞ을뵈거ᄂᆞᆯ쇠평쇠
ᄒᆞ고공오뎌신져님
금을위ᄒᆞ여죽을ᄯᅢ
라ᄯᅩᄎᆞᆫ일ᄒᆞ여무이
시ᄡᅳ리오ᄒᆞ고님금
겻ᄐᆡ셔나지아니ᄒᆞ
더니이윽고ᄲᅡᆨᄒᆞᆷ을
개ᄒᆞ여님금이ᄂᆞ치
샬셰ᄒᆞ마ᄌᆞ니ᄇᆡᆨ관

시다돌아나뎌희혼
로도복슬남은져블
혜는남은뎐의
올라몸으로뻬뎨를
가리오니셩의군셔
쇼를순이누티와죽
이러ᄒᆞ거놀뎨ᄀᆞᆯ오
뎌혀쇼는튱신이라
죽이지말라ᄒᆞ신대
군셔ᄀᆞᆯ오ᄃᆡ폐하의
텅을바다시니예희의
만법처아니ᄒᆞ리이
다ᄒᆞ고드뒤여쇼를
죽거니피뎌혀뎨의
오새묻ᄒᆞ엿는지
라ᄂᆞᆫ에좌위뎨의옷
슬셜고져ᄒᆞ더뎨ᄀᆞ
오ᄃᆡ혀시튱의피니
ᄲᅡᆯ지말라ᄒᆞ시니라

太宰顒僭侈日甚大失衆望司空東海王越等謀討之帝
惠帝北征徵前侍中嵇紹詣行在侍中秦準謂紹曰卿有
佳馬乎紹正色曰臣子扈衛乘輿死生以之佳馬何為顒
遣石超帥衆五萬拒戰超軍奄至乘輿敗績於蕩陰帝傷
頰中三矢百官侍御皆散紹朝服下馬登輦以身衛帝兵
人引紹於轅中斫之帝曰忠臣也勿殺對曰奉太弟令惟
不犯陛下一人耳遂殺紹血濺帝衣超奉帝幸其營左右
欲浣帝衣帝曰嵇侍中血勿浣也

【詩】爾奉天威討亂臣肯論生死故遂延蕩陰敗績群僚
散獨披朝衣衛帝身　殺身終是要成仁千古忠貞覓
一人血濺御衣仍勿浣披閱詎不為酸辛

진셩뎨때예소쥰이
반ᄒᆞ여휫강을범ᄒᆞ
쟝ᄎᆞᆺ나라흘범ᄒᆞ려
ᄒᆞ거ᄂᆞᆯ텬져상셔령
변곤으로ᄒᆞ여곰군
ᄉᆞ를거ᄂᆞ려쥰으로
더브러쳥동의ᄡᅡ호
다가크게패ᄒᆞ고또
쳥계칙의셔ᄡᅡ호시
곤이둥의부스름이
나셔ᄀᆞᆺᄒᆞ려아무러
못ᄒᆞ엿더라알흠을
거ᄂᆞ리여젼력ᄒᆞ
여ᄡᅡ호다죽으니두아
ᄃᆞᆯ진과위아비죽으
믈보고적딘의ᄃᆞᆯ아
들어ᄒᆞᆷ긔죽으니진
의어미두아ᄃᆞᆯ의죽

여ᄋᆞᆯ엇ᄋᆞ며닐오ᄃᆡ
되ᄃᆡ아비튱신이되고
아ᄃᆞᆯ이효ᄌᆞ되니므
슴ᄒᆞᆫ이이시리오ᄒᆞ
더라나라히시듕표긔
쟝군ᄀᆡ부의동삼ᄉᆞ
를증ᄒᆞ고시호ᄅᆞᆯ
튱뎡이라ᄒᆞ고ᄉᆞ당
애태뢰ᄒᆞ니라

蘇峻擧兵攻陷姑孰濟自横江登臺兵屢敗成帝詔尙書令
卞壼都督大桁東諸軍及峻戰于西陵大敗峻攻青溪柵
壼又拒擊峻因風縱火燒臺省諸營皆盡壼背癰新愈瘡
猶未合力疾苦戰而死二子眕盱隨之亦赴敵死眕母撫
二子尸哭曰父爲忠臣子爲孝子夫何恨乎贈侍中驃騎將
軍開府儀同三司謚曰忠貞祠以大牢

閫強臣跋扈濟横江屢破臺兵犯大邦新愈癰疽瘡未
合傾身苦戰死無憾　一門忠孝兩能全二子賢名孰
比肩贈謚褒崇祠大牢輝光青史至今傳

신쳥顯해에숨쇼
이텬역ᄒᆞ야군ᄉᆞ
을거ᄂᆞ리고꾸숙
하ᄒᆞ니구니쉰힘
니소변ᄉᆞᆯᄒᆞ엿는
환이군ᄉᆞ를바ᄅᆞ
쳐나라ᄒᆞ구환ᄒᆞ
고쥐홀시모로사
룸이ᄃᆞ토와골오
되공올군시젹교
약ᄒᆞ니낭쳐몸올
쳐시니ᄆᆞ만이안
자쳐뒤변ᄒᆞ라ᄒᆞᆫ
대환의령ᄋᆡᄒᆞ고
골오면신지되여
샤죄이위퇴ᄒᆞᆷ을
보고어지편히안
자시리ᄒᆞ고느뒤
니군소ᄅᆞᆯ나와여
려번빠화때ᄒᆞ되
풍시이믈리나지
아니ᄒᆞ고나가바

텽현ᄒᆞ히옹거ᄒᆞ
니ᄒᆞ혹애권창어소
쥰으로티브리화
천ᄒᆞ리。ᄒᆞ내착이
군오되내엇시서
죄으로려보기。
돈ᄒᆞ리오베두족
으나이ᄯᅩ쵸명이
라ᄒᆞ고장군윤홍
을보내여배화ᄯᅩ
때ᄒᆞ니좌위쟝을
권ᄒᆞ쳐물리나라
ᄒᆞᆫ대쥰이군오뎌
내환공의두디온
은혜를닙어시니
막당히죽으므로
베감ᄒᆞᆯ쥐라나의
환공을저ᄇᆞ리지
아니ᄒᆞᆷ은ᄯᅩᄒᆞᆫ봉
식나라ᄒᆞᆫ두려
지아닌ᄀᆞᆺ드니라
ᄒᆞ프드되셔버착
족스니쥐허군을
나와병을파ᄒᆞ고
환이를잡아죽이

蘇峻襲陷姑孰宣城内史桓彝欲起兵赴朝長史裨惠以郡兵寡弱山民易擾宜且案甲以待彝厲色曰見無禮於其君者若鷹鸇之逐鳥雀今社稷危逼義無宴安遂進屯蕪湖峻將韓晃擊破之因攻宣城彝退保廣德尋聞京城不守進屯涇縣惠又勸彝與峻通使以紓交至之禍彝曰吾受國厚恩義在致死焉能忍恥與逆臣通問如其不濟此則命也彝遣將軍俞縱守蘭石晃攻之將敗左右勸退縱曰吾受桓侯恩厚當以死報吾之不可負桓侯猶桓侯之不負國也遂力戰而死晃遂進軍城陷執彝殺之

詩 心期掃賊愧迍邅成敗曾將命付天俞縱感恩甘死報桓侯真箇以身先賊勢強梁莫可接官軍寡弱太如何縱然死敵人臣分節義堅貞問幾多

당현종시졀에안녹산이
반하여군사를거나리
고모형하야나리니샹
산태슈안고경이항양
태슈와막지못할줄을
알고거짓항복으로
더브러의논하여거짓
녹산을마즈니녹산이
금의와자포를주거놀
고경이바다닙고나려
두려님더러오뫼이옷
닙고뭇을마자하니
기경이엄안이더라
드뒤여호가저로에잔
여군사를나루혀녹산
을쳐담회미녹산이변
을보내여쳐거놀두시
돔이슈양으로써화냥시
패날이진하여슈우잡
피이녹산이고경을

件지쥐ᄂᆞᆫ오ᄃᆡ내일족
니ᄅᆞ되네ᄒᆞ여배ᄉᆞᆫᄒᆞ
엿ᄉᆡᄂᆞᆫ엇지날을져ᄇᆞ
리ᄂᆞᆫ다고경이ᄇᆡ지쥐
꼴으되배ᄇᆞᆫ뒤오랑캐
놈으로ᄐᆞᆫ지니를ᄉᆞᆯ도
질도ᄉᆞᆯᄒᆞ이시고ᄂᆞᆫ바
롱이배ᄒᆞᆯ무엄ᄉᆞ니
게우에ᄒᆞ여보오관뒤
봐ᄒᆞᄂᆞᆫ다배비록ᄂᆞᆯ을
천거ᄒᆞ여시나배엇지
니을뜻ᄒᆞ나라ᄒᆞᆯ반ᄒᆞ
리오너를버히디못ᄒᆞ
을을혼ᄒᆞ노니빌언배.
나ᄂᆞᆫ개ᄀᆞᆺ흔놈아섈리
날을죽이라ᄒᆞᆫᄃᆡ녹산
이내로ᄒᆞ여두사ᄅᆞᆷ을
호ᄃᆡ미ᄑᆞ겨ᄀᆞ죽이니
두사ᄅᆞᆷ이주기에니ᄅᆞ
도록ᄭᅮ짓기ᄅᆞᆯ긋치저
아니ᄒᆞ니

祿山至藁城常山太守顏杲卿力不能拒與長史袁履謙
往迎之祿山賜杲卿金紫杲卿還中指衣謂履謙曰何為
著此履謙悟其意謀討祿山起兵纔八日守備未完祿山
使史思明蔡希德引兵至城下杲卿晝夜拒戰糧盡矢竭
城遂陷賊執杲卿履謙等送洛陽祿山數之曰我奏汝為
判官不數年超至太守何負於汝而反杲卿罵曰汝本營
州牧羊羯奴天子擢汝為三道節度使恩幸無比何負於
汝而反我世為唐臣雖為汝所奏豈從汝反邪我為國討
賊恨不斬汝何謂反也臊羯狗何不速殺我祿山大怒并
履謙縛而咼之二人比死罵不絕口顏氏死者三十餘人
讚 杲卿忠義上天知金紫光華志豈移顏有履謙謀
意同心報國任身危　欲討燕兒起義兵方寬城陷竟
戮成忠肝徹烈昌當青史昭垂不朽名

안녹산의장슈윤ᄌᆞ
기슈양고을치거
놀슈양대슈장원은
붕ᄂᆞ태슈당슌의게구
원ᄒᆞ되용ᄒᆞᆫ대슌이
효ᄉᆞ를거ᄂᆞ리고되
양셩이궁의들이허원
으못되브리ᄒᆞᆫ가지
모도셕을막음시듀
야모험ᄒᆞ배ᄊᆞ화ᄒᆞᆯᄉᆡ
수셩함실ᄊᆞ호니셩
듕의냥식이진ᄒᆞ야
나모ᄭᅥ풀을음식으
셧ᄭᅥ어눈지라호이
권ᄒᆞ야쥥을ᄆᆞᆯ미고
ᄂᆞᆫ마나관ᄒᆞᆫ에두자
물이로오뒤슈양을
강회에듯ᄒᆞᆫ셩ᄒᆞ니
슈양을보이면강회
ᄯᅡᄂᆞᆫ고을을ᄭᅳᆫ칠
이미라ᄒᆞ고구치ᄃᆡ
히너역을ᄃᆡ시진ᄒᆞ

아몸도잡으며쉬와
쥐도진아먹다가진
ᄒᆞ니댱슈아ᄉᆞ랑ᄒᆞ
는쳡을쥭여군ᄉᆞ을
먹이고등의드ᄯᅳᆺᄉᆞ
ᄌᆞᆫ을뎌도옹나,ᄒᆞ니
도반홀ᄂᆞ이업다니
도적이급히치니군
사ᄃᆞ다주리고병드리
能호지못ᄒᆞ난지라
슌이셔향ᄒᆞ야져비
ᄒᆞ여굴오ᄃᆡ신이힘
이다ᄒᆞ얏ᄂᆞᆫ지라사
라셔ᄯᅢᄒᆞ올갑지못
ᄒᆞ오니죽어맛당이
모진귀신이되여도
적을죽이리이다ᄒᆞ
더니두사ᄅᆞᆷ이살수업
히여죽으나이제에
남뎌은파쇠ᄒᆞᆫ슌두
사ᄅᆞᆷ의ᄒᆞᆷ쉬살으ᄌᆡ
ᄒᆞ여ᄒᆞᆫ가지로죽으
니라.

祿山將尹子奇寇睢陽許遠告急于張巡巡自寧陵引兵
入巡有兵三千人與遠兵合六千八百人巡晝夜苦戰
一日或二十合遠謂巡曰遠請爲公守公爲遠戰子奇復
徵兵數萬城中食盡人廩米日一合雜以茶紙樹皮議棄
城東走巡遠謀曰睢陽江淮之保障若棄去賊必乘勝長
驅是無江淮也且我衆饑羸走必不達不如堅守以待之
茶紙旣盡遂食馬馬盡羅雀掘鼠所餘纔四百人賊登城
將士病不能戰巡西向再拜曰臣力竭矣生旣無以報死
當爲厲鬼以殺賊城陷巡被執并南霽雲雷萬春等皆被
害生致遠於洛陽囚之客省及安慶緖北走使嚴莊害之

國賊冠睢陽勢甚張將軍戰守保危亡城中食盡飢羸
極西向陳辭出肺腸 二公忠膽自相符壯節巍巍烈
丈夫欲保江淮同固守力窮城陷竟捐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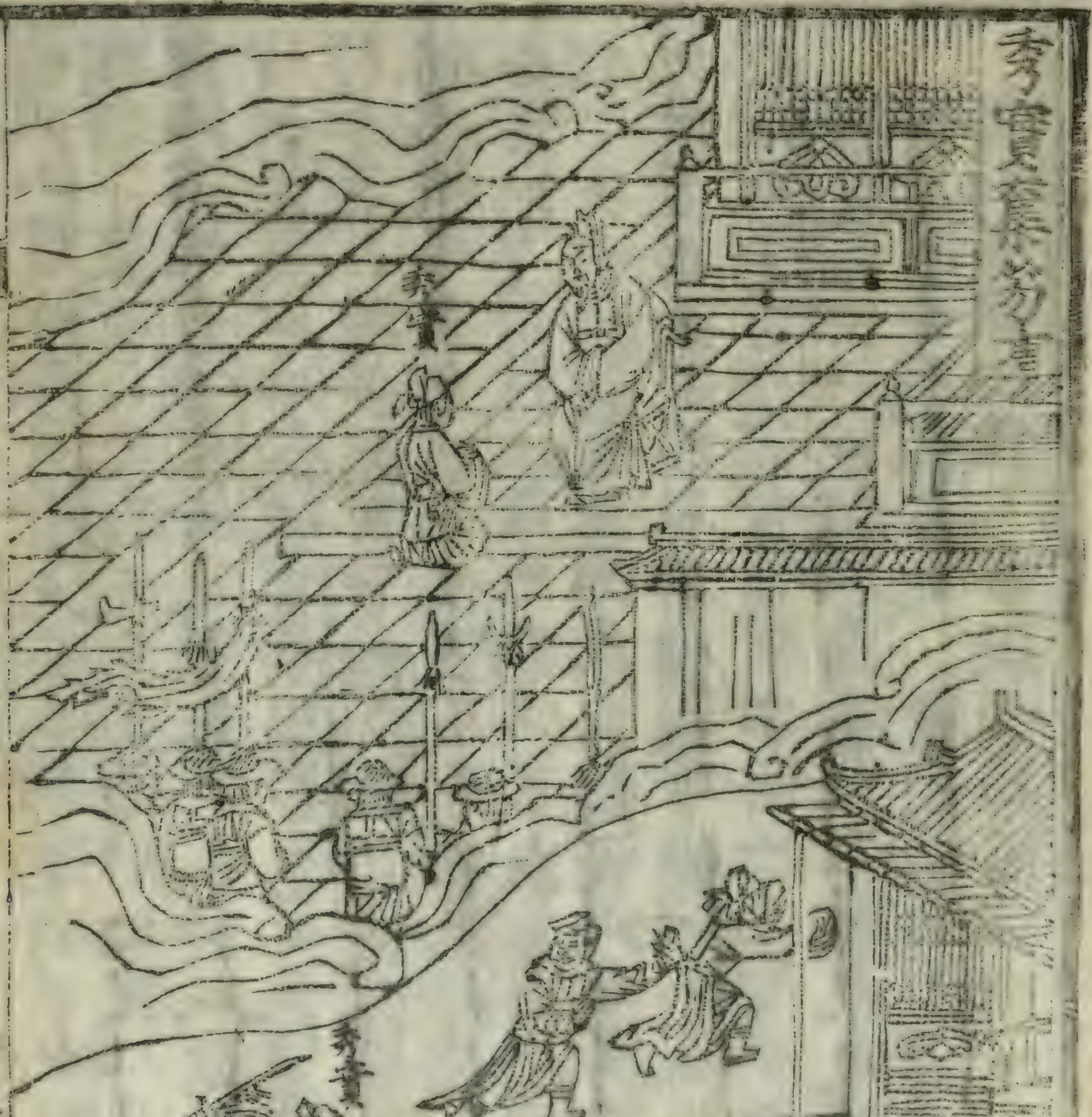
안녹산의쟝슈슌
이요양셩ᄒᆞᆯ녁서셤
이젹고그시업ᄂᆞᆫ지
라ᄂᆡ슈댱흥이힘으
로능히막지못ᄒᆞ여
샬ᄋᆞ잡히니도적이
흥ᄃᆞ려닐ᄋᆞ되쟝군
은쟝ᄉᆡ라우리와부
귀를ᄒᆞᆫ가지로ᄒᆞ미
엇디ᄒᆞ뇨흥이ᄀᆞᆯ오
되나ᄂᆞᆫ당나라두ᄉᆞ
이라엇지도젹의게
항복ᄒᆞ리오우리님
금이쵹ᄯᅡ뒤피ᄒᆞ믈
ᄌᆞ식ᄀᆞᆺ치ᄒᆞ시거ᄂᆞᆯ
은혜갑흘쥴을모
프랍히ᄃᆞ손븐ᄋᆞ
허ᄒᆞ나대댱부ᄂᆞᆫ

ᄒᆡᆼ뎌을계히짓ᄎᆞ
ᄒᆞ믈ᄎᆞᆷ아복면ᄒᆞ야
신해되라ᄇᆡ녹산올
ᄯᅩ와반ᄒᆞ옴은부귀ᄒᆞ
고져ᄒᆞᆷ이어니와내
보건대비죡(이비어)
지아니ᄒᆞ리라ᄉᆞ명
이대로ᄒᆞ야ᄒᆞ옴을듣
으로혀죽이니죽도
록ᄭᅮ지기를그치지
아니ᄒᆞ니라

史思明與饒陽彌年不下及諸郡皆陷併力圍之外救俱
絕城陷擒裨將張興謂曰將軍真壯士能與我共富貴乎興
曰興唐之忠臣固無降理今數刻之人耳願一言而死思
明曰試言之興曰主上待祿山恩如父子群臣莫及不知
報德乃興兵指闕塗炭生人大丈夫不能翦除凶逆乃北
面為臣乎且足下所以從賊求富貴耳譬如燕巢于幕豈
能久安何如乘間取賊轉禍為福長享富貴不亦美乎思
明怒鋸殺之罵不絕口以至於死

詩 彌年不下守孤城併力攻圍勢已傾自謂固無降賊
理是知真箇丈夫情　被執纔餘數刻生君臣大義說
分明身膏鋸上忠肝裂罵賊終然不絕聲

당별종대여단남설
이일혼난장슈ᄃᆞᆫ
괵이권을잣솟다가
파괴이산자야ᄒᆞ
니를티가졈의옷셔
니러위쥬져라ᄒᆞᆫ논
놈이쟝초반역을ᄒᆞᄆᆡ
ᄒᆞ더슈실드를내여
궤동뉴문샹다려ᄒᆞ
여ᄃᆞ결이쳥ᄒᆞᆫ다슈
실계가보ᄑᆡ의리의
말로ᄲᅧ셔저쳐라라
히귀슌ᄒᆞ야ᄒᆞᄂᆞᆫ지
듯지아니ᄒᆞ거ᄂᆞᆯ슈
실이모든ᄯᅡᆼ나로티
브러친ᄒᆞ여조를버
히려ᄒᆞ더니일을맛
치일우미곳ᄒᆞ여ᄎᆔ
ᄌᆔ쟈슈실을블러릴
ᄒᆡ되기를민논ᄒᆞ거
ᄂᆞᆯ슈실이블연히ᄂᆞᆯ



티나쥬ᄌᆞ이악ᄒᆞ원
후이졈ᄂᆞᆫ호ᄅᆞᆯ아
사나아ᄂᆞᆯ어조ᄆᆡ얌
의츰ᄋᆞᆫ고什지지
골오ᄃᆡ맛쳔드시늡
아비ᄂᆞᆯ거ᄒᆞ니버
히지못ᄒᆞ냐졀을ᄒᆞ
ᄒᆞᄂᆞ니머지니를못
체ᄒᆞᆫᄒᆞ되오ᄒᆞ고민
ᄒᆞ야ᄒᆞᄅᆞᄂᆞ조와니
미굴치닥피셔리ᄂᆞ
계ᄒᆞ독ᄒᆞᄂᆞᆫ디라져
ᄒᆞ이니라

朱泚入宮以段秀實失兵柄遣騎召之秀實往見泚曰
犒賜不豊有司之過天子安得知之宜以此諭將士迎乘
輿泚不悅秀實與將吏謀誅泚未發泚遣韓旻將兵迎駕
寶䕶奉天秀實謂岐靈岳曰事急矣使靈岳詐爲姚令言
符令旻且還旻還秀實謂同謀曰旻還吾屬無類矣我當
搏泚殺之不克則死使劉海濱等陰結死士爲應旻至泚
令言大驚靈岳承罪而死泚召李忠臣源休及秀實等議
稱帝秀實勃然起奪休象笏前唾泚面罵曰狂賊吾恨不
斬汝豈從汝反邪以笏擊泚中額濺血灑地忠臣助泚泚
得脫走秀實謂泚黨曰我不同汝反何不殺我衆爭殺之
詩 姚符詐作閔何緣爲遏旻軍襲奉天扞衛于艱功不
細笏名千載孰居先 黨惡崇姦寔有徒勃然抽笏徒
忘軀形骸縱被人爭殺徇國忠誠亢不[illegible]

셕연분은당덕종
ᄯᅢ사ᄅᆞᆷ이라졀도
ᄉᆞ니회광이연분
을ᄉᆞ랑ᄒᆞ야양ᄌᆞ
ᄅᆞᆯ삼앗더니회광
이역적ᄌᆔᄌᆞ로더
브러통화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연분이ᄀᆞ
마니그ᄯᅳᆺ으로배
텬ᄌᆞᄭᅴ고ᄒᆞ니회
광이알고연분을
블러ᄭᅮ지져ᄀᆞᆯ오
ᄃᆡ비내아ᄃᆞᆯ이되
엿ᄯᅥ가이제날을
져ᄇᆞ려내집을망
ᄒᆞ려ᄒᆞᄂᆞ다분이
ᄃᆡᄒᆞ야ᄀᆞᆯ오ᄃᆡ텬
ᄌᆞᄂᆞᆫ공으로ᄡᅥ배고

演芬抉死 唐

광을삼푸퓽은날
로베심복을삼앗
드니공이춍아텬
ᄌᆞᄅᆞᆯ배반ᄒᆞ니내엇
지공을져ᄇᆞ리지
아니ᄒᆞ리오내역
젹되기ᄅᆞᆯ면ᄒᆞ면
죽어도ᄒᆞᆫ이업ᄉᆞ
리로다ᄒᆞᆫ대회광
이군ᄉᆞᄅᆞᆯᄒᆞ여곰
분을죽여ᄠᅳ저머
으라ᄒᆞ니다ᄀᆞᆯ오
ᄃᆡ렬ᄉᆞ라ᄒᆞ티라
텬ᄌᆞ들으시고분
을병부샹셔ᄅᆞᆯ류
증ᄒᆞ시니라

石演芬事李懷光至都將光親信畜爲假子懷光軍三橋
將與朱泚連和演芬使客郜成義到行在言懷光無破賊
意請罷其摠統成義走告懷光子璀懷光召演芬罵曰爾
爲我子奈何欲破吾家今日負我宜卽死對曰天子以公
爲股肱公以我爲腹心公乃負天子我何不負公且我胡
人無異心惟知事一人不呼我爲賊死固吾分懷光使士
臠食之皆曰烈士也可令快死以刀斷其頸德宗聞贈演
芬兵部尚書賜其家錢三百萬斬成義於朔方

詩 將軍摠統擅兵機與賊連和國事非唯有胡人無異
志翼陳行在反相違　公負君王我負公惟知事上竭
孫忠竟遭斷頸能全節千載争欽烈士風

춍졍과이텬의후죵황
테오랑캐게잡히여가
니오랑캐테의남은화
포를벗쉬끄칭의롤밧
끄아닙히려ᄒᆞ거ᄂᆞᆯ니
부시랑니약쉬뫼쉬갓
다가테을안끄울며오
랴재믈주지죤대뭇호
랑캐약슈돌ᄋᆞ어내여
어즈리이치니놋치아여
여젼져라오랑캐쟝쉬
니루되주이지말라ᄒᆞ
끄잡아가도니호이힐
ᄒᆞ여흔오디져놈을슈
죵ᄒᆞ면부귀을어드리
랴약쉬ᄒᆞ여흔오티
하ᄂᆞᆯ의두날이업ᄂᆞ니
뗘엇지두남금을섬기
리오ᄒᆞ고대약슈와죵여
ᄯᅩ흔권ᄒᆞ여흔오디픙
의어벼이낙ᄒᆞ늘거시
니쥐기클ᄒᆞ여살아놀.

야가며엿티ᄒᆞ뇨약슈
仔지쳐꿀오뎌등신미
남금을셥기매주어도
두ᄃᆞ옹이업ᄂᆞ니내다
시접을도라보지아니
ᄒᆞ리라그리나네도라
가혀개죽ᄂᆞᆫ줄을굽히
숩지말라ᄒᆞ티니후에
오랑캐장슈약슈ᄃᆞ려
ᄋᆞ귀ᄂᆞᆯ약슈주좌ᄒᆞ여
仔젓기를마지아니ᄒᆞ
니잡아누리와그입을
ᄭᆡ여피흐르되仔짓
기를더옥뫼이ᄒᆞ대갈
로배목을ᄲᅧ고혀ᄅᆞᆯ베
혀주이나주거를넘ᄒᆞ
여노래ᄒᆞ여ᄀᆞᆯ오뎌머
리ᄅᆞᆯ드러하ᄂᆞᆯ게믈오
미여하ᄂᆞᆯ이무ᄎᆞᆷ내말
을아니ᄒᆞᄂᆞ뇨ᄯᅩ다등신
이죽으믈본위미여죽
은들ᄯᅩᄒᆞ요무ᄉᆞᆷᄃᆞᆺᄒᆞ
미오ᄒᆞ티라

靖康二年徽宗至金營金人逼帝易服吏部侍郎李若水抱持而哭詆金人爲狗金人曳若水出擊之敗面氣結仆地粘沒喝曰必使李侍郎無恙若水絶不食或勉之曰今日順從明日富貴矣若水歎曰天無二日若水寧有二主哉其僕亦慰解曰公父母春秋高若小屈冀得一歸覲若水叱曰忠臣事君有死無二吾不復顧家矣然吾親老汝歸勿遽言令兄弟徐言之可也後旬日粘沒喝召計事若水因歷數而罵之粘沒喝令擁之去若水反顧罵益甚監軍撾破其唇噀血罵愈切至以刃裂頸斷舌而死臨死歌曰矯首問天兮天卒不言忠臣効死兮死亦何從

詩 胡兵逼帝易黃衣 吏部哀號獨抱持 矯首問天天不語 臨終一曲最堪悲
雙親已老辦阽危 何不將身少屈爲 縱使順從明日貴 歲寒高節孰能移

송고종ᄯᅢ예뉴흡이
소신이되야오랑캐
게들어가니오랑캐
뎡욕ᄒᆡ흡을머물워
벼슬ᄒᆞ이고져ᄒᆞ거
놀흡이조오되살기
를도모ᄒᆞ여두렴을
셤기믄죽어도못ᄒᆞ
로다ᄒᆞᆫ대ᄯᅩ여러번
부귀로배달내거놀
흡이ᄒᆞᆫ놀올을어
리크게브르고죵
히예글을베폴오
되발티논두지아
바를셤기지아니
ᄒᆞ고듕신은두님
금을셤기지아니
ᄒᆞᄂᆞ니이뤄님금

기오랑개게욕ᄀᆞᆯ
보시니뻐엇지죽
음을피ᄒᆞ리오ᄒᆞ
고ᄡᅳ기ᄅᆞᆯ못ᄎᆞ매
사ᄅᆞᆷ으로ᄒᆞ여곰
보라가그아ᄃᆞᆯ의
귀틘ᄒᆞ라ᄒᆞ고즉
시목욕ᄒᆞ고옷슬
ᄀᆞ라닙고목ᄆᆡ어
죽으니오랑캐그
튱셩을탄식ᄒᆞ여
뎔뒤헤무덧더니
팔십일만의다시
내여빙습ᄒᆞ니얼
골이살아실ᄯᅢᄀᆞᆺ
더라

河東割地使劉韐至金營金人館之僧舍其僕射韓正謂
之曰國相知君今用君矣韐曰偷生以事二姓有死不爲
也正曰軍中議立異姓欲以君爲正代得以家屬行與其
徒死不若北去取富貴韐仰天大呼曰有是乎歸書片紙
曰金人不以予爲有罪而以予爲可用夫貞女不事二夫
忠臣不事二君況主辱臣死此予所以必死也使親信持
歸報其子子羽等即沐浴更衣酌卮酒而縊金人歎其忠
瘞之寺西岡上遍題窓壁以識其處凡八十日乃就斂顏
色如生

詩 劉公奉使涉胡塵 就使浮丘已八旬 顏色如生良有
以 須知忠義格蒼旻 捐軀徇國是丹忱 豈肯偷生事
彼金 賊歎忠誠埋瘞謹 固知鬥虜亦人心

송흠종세에부찰이
사신이되여오랑캐
나라희들어갈ᄉᆡ이
ᄯᆡ예오랑캐임의셔
울을범ᄒᆞ엿ᄂᆞᆫ지라
혹이권ᄒᆞ여가디말
나ᄒᆞ거ᄂᆞᆯ찰이ᄀᆞᆯ오
되군명을밧아시
니엇지어려오믈피
ᄒᆞ리요ᄒᆞ고드되여
힝ᄒᆞ야길히셔오랑
캐를만나니오랑캐
부찰ᄃᆞ려절ᄒᆞ라ᄒᆞ
거ᄂᆞᆯ찰이듯지아니
ᄒᆞᆫ대오랑캐장범으
으로쥐히며자우로
ᄒᆞ여곰목을잡아굽
히려ᄒᆞ되찰이ᄡᅥ히
박은드시셔셔ᄯᅥ지
쥐골오ᄃᆡ죽으믄죽으
러니와엇지오랑캐
게절ᄒᆞ리오ᄒᆞᆫ다,오

량개대로ᄒᆞ여잡아
내여가라ᄒᆞ니찰이
죽음을면치못ᄒᆞᆯ줄
을알고표제사ᄅᆞᆷ두려
닐오ᄃᆡ내부뫼날을
심히ᄉᆞ랑ᄒᆞ시니내
죽음을들으시면반
ᄃᆞ시크게셜워ᄒᆞ실
쎄시니네도라가내
말ᄉᆞᆷ으로알외되나
라일의죽ᄉᆞ니셜워
ᄒᆞ디마ᄅᆞ쇼셔ᄒᆞ티
라ᄒᆞ고술와져기그
ᄆᆞᄋᆞᆷ을플으시게ᄒᆞ
라ᄒᆞ니자위에맬을
늦고우티아니ᄒᆞ리
업터니ᄆᆞᄎᆞᆷ내죽인
배되니라

宗正少卿傅察爲接伴使時金人已渝盟察至燕山聞斡
离不入寇或勸其毋遽行察曰銜命以出聞難而止若君
命何遂行遇斡离不領兵至曰汝國失信吾興師南向海
上之盟不可恃也公曰兩國講好信使往來項背相望何
謂失信太子干盟而動意何爲乎虜左右促使拜白刃如
林公曰死則死耳豈有俱人臣而輙拜者或抑捽使伏地
公植立衣冠顚頓終不屈斡离不怒曰爾不拜我邪麾令
去公知不免謂其下曰我死必矣我父母老素鍾念我聞
之必大戚若等得脫幸記我言以告吾親知我死國少解
其無窮之悲也左右盡泣既次燕山遂遇害

詩 傅公銜命至燕山聞敵渝盟莫肯還白刃如林終不
屈輕生就死自安閑　虜令屈拜立如山抗節孤高不
可攀臨死觧親無限恨兩全忠孝古來難

숑교죵건염삼틴의오
랑개크게놀무리권강
의들어오니邢강디부
딘방광이팀의나가항
복ᄒᆞ니통판양방예ᄂᆞᆫ
항복ᄒᆞ디아니ᄒᆞ고믈
의돔아들어죽으려ᄒᆞᆫ
대모든뵈ᄉᆡᆼ이구ᄒᆞ여
내엿ᄌᆞ니오탕개게잡
히여가니혹이ᄡᅢᄒᆞ여
항복ᄒᆞ라ᄒᆞ되방예ᄎᆞ
인ᄂᆞᆫ됴표입올다믈고말
을아니ᄒᆞᄂᆞ니라잇든
날오랑개샹ᄉᆔ블티다
가ᄯᅳᆯ히ᄯᅢ우고쥔박ᄒᆞ
거ᄂᆞᆫ방예마리ᄅᆞᆯ십돌
희브드이즈며크게소
뤼ᄒᆞ여ᄀᆞᆯ오ᄃᆡ대엇지
개돗과ᄒᆞᆫ가지로살아
시리오ᄒᆞ고파롤홉리
놋츰히니오랑개샹
쉬ᄎᆞᆯ은일업시ᄲᅢ여보내

邦乂書襟 宋

建炎三年杜充守建康金虜大至我師敗績虜取我舟以濟奪馬家渡進營南門外充遁知府陳邦光出降通判楊邦乂欲赴水父老救免既至虜營偃卧不起官屬勸降閉口不荅明日虜酋遣所親說之邦乂曰吾計决矣願無辭費明日兀朮置酒召邦乂不往挽以至庭及階以首觸柱礎疾呼曰我豈生與犬豕均飽者流血被面左右挾以出虜酋命拘之明日虜書死活二字示之取筆書字曰死虜怒復拘之先是邦乂刺血書襟曰寧作趙氏鬼不爲他邦臣虜酋切不知也明日復引問荅曰不能降兀朮甚怒邦乂大駡裂巾擲衣以祈速死虜見襟書知不可屈遂害之

詩 金兵大至建康危　杜遁陳降勢不支　惟有楊公終不屈　毅然壯節是男兒

刺血書襟意自眞　寧爲趙鬼不他臣　可憐一死全忠節　籍籍聲傳億萬春

고잇ᄐᆞᆫ날ᄀᆞᆯᄉᆞᆫ돈홈베뵈되죽을야랴ᄒᆞᄂᆞᆫ지와살니라ᄒᆞᄂᆞᆫᄌᆞᄅᆞᆯ뵈거ᄂᆞᆯ방예죽을ᄉᆞᄌᆞᄅᆞᆯ배뵈니오랑캐노ᄒᆞ여다시가돈다라방애ᄑᆞᆯ족괴로옷기ᄉᆞᆯ의글을배ᄀᆞᆯ오ᄃᆡᄎᆞᆯ하리됴나라귀신이될지언뎡다ᄅᆞᆫ나라신하ᄂᆞᆫ되지아니ᄒᆞ리라ᄒᆞ엿더니엇ᄃᆞᆫ날ᄯᅩ잡아못거ᄂᆞᆯ크게ᄭᅮ짓고덜이의ᄇᆞᆫ관을ᄭᅦ치고옷ᄉᆞᆯ배서ᄃᆡ티ᄀᆞᆯ오ᄃᆡᄲᆞᆯ리죽이라ᄒᆞ니오랑캐그옷기ᄉᆞᆯ의ᄡᅳᆫ글을보고항복밧지못ᄒᆞᆯ줄을알고ᄆᆞᄎᆞᆷ내죽이니라

송흠종령강이변외오
랑캐크게들어와변경
읍송이바라하도을에위반니
빌골돌만의휘종파흠
종두황뎨와황후와태
ᄌᆞ와모든비빈을잡아
오랑캐나라흐로들어
가니고종황뎨예휘흠종재악
야라돌남경으로도라나
즉위ᄒᆞ디라이ᄯᅢ셰승
상진회오랑캐와회친
ᄒᆞ기를쥬쟝ᄒᆞ니츄밀
부ᄉᆞ악비분히너겨죽
음으로긔약ᄒᆞ야능의
진튱보국비조ᄅᆞᆯ사이
고오랑캐ᄅᆞᆯ티ᄂᆞᆫ길흘
회복ᄒᆞ려ᄒᆞᆯ세배ᄒᆞ되
마다이긔여향ᄒᆞᄂᆞᆫ바
의뎌퇴ᄒᆞ리업ᄉᆞ니오
랑캐군셔악비의긔ᄅᆞᆯ
보면다ᄂᆞ라나ᄂᆞᆫ지라
오랑캐크게근심ᄒᆞ여

ᄆᆞ마니진회의게통ᄒᆞ
되악비ᄅᆞᆯ죽여야화친
이굿을이라ᄒᆞ니진회
아ᄀᆞᆺ됴로나악비ᄅᆞᆯ죽
이리도모ᄒᆞᆯ시대예악
비의위명과공을싀긔
ᄒᆞ여참소ᄒᆞᄂᆞᆫ재이시
니진회인ᄒᆞ여텬ᄌᆞ의
조셔ᄅᆞᆯ뎡ᄒᆞ라악비부
ᄌᆞᄅᆞᆯ잡아다가옥의가
노앗ᄯᅡ가죽이니라비
텬셩이튱효ᄒᆞ야나라
흘위ᄒᆞ야진튱ᄒᆞ여복
슈셜티ᄅᆞᆯᄒᆞ리ᄒᆞ다가
ᄯᅳᆺ을일오저못ᄒᆞ고못
ᄎᆞᆷ내쇼인의손의원통이
죽으니텬하사ᄅᆞᆷ이아
ᄂᆞᆫ슬허ᄒᆞᄂᆞ니업ᄂᆞ디
라무덤것히송뵈나ᄃᆡ
가지들이다남방으로
향ᄒᆞ더라

初樞密副使岳飛言和議非計秦檜惡之虜入寇上命飛
援淮西即日就道張俊歸書以乏糧爲言飛不爲止俊歸
朝又言飛逗留又言飛謂山陽不可守沮喪士氣與檜謀
令諫議大夫万俟卨劾飛罷兵柄檜必欲殺飛乃與俊謀
使飛部將王俊妄言張憲謀據襄陽還飛兵柄令俊鞫之
使憲誣服逮繫飛及子雲大理獄檜手書小紙付獄即報
飛死憲雲棄市飛忠孝出於天性愛養士卒行師有紀律
能以少擊衆力平群盜建議恢復慨然以雪國耻爲己任
金人畏之至呼爲父望其旗亦不敢近嘗涅其背爲盡忠
報國四字高宗賜精忠旗以嘉異焉及聞其死天下冤之

詩 奸兇誤國欲和親誓取中原有幾人舉義復讎爲己
任岳王忠孝出天眞 盡忠報國出丹誠涅背還應字
字明愛養軍兵嚴紀律古今誰得更齊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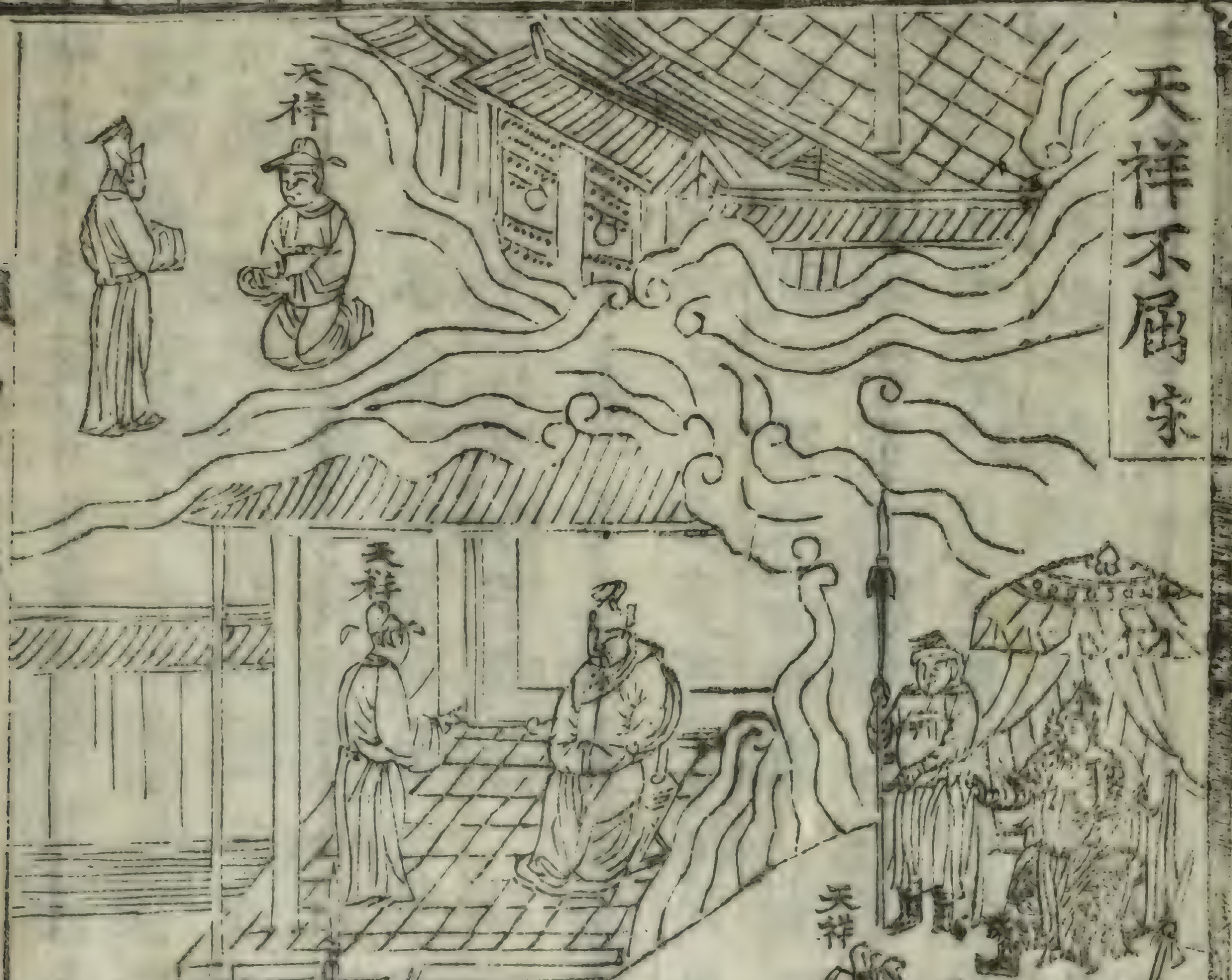
진ᄉᆞ 윤곡은 송나라 담
쥐 사ᄅᆞᆷ이라 효공화태
티우 이븐긔 ᄒᆞᆫ 계경유
원을 ᄒᆞ엿더니 원나라
군ᄉᆡ 크게 들어와 셩을
에워ᄡᆞ니 곡이 셩을 보
젼치 못ᄒᆞᆯ 줄을 알고 그
두 아ᄃᆞᆯ의 관녜를 ᄒᆡᆼᄒᆞ
니 사ᄅᆞᆷ이 니ᄅᆞ되 이엇
던 ᄒᆞᆫ ᄯᆡ완ᄃᆡ 이런 오활
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뇨 곡이
ᄀᆞᆯ오ᄃᆡ 우리 죽게 되여
시니 아ᄒᆡ들로 ᄒᆞ여곰
관ᄃᆡᄒᆞ고 디하의 가 션
인ᄭᅴ 뵈와 ᄌᆡ노라 ᄒᆞ
고 임의 관녜를 못ᄎᆞ매
즉시 의관을 졍히 ᄒᆞ고
계필을 ᄒᆡᆼᄒᆞ야 ᄌᆡ븨ᄒᆞ

고그·아ᄋᆞ악슈ᄃᆞ리ᄇᆞᆯ
비로오되비논급히ᄃᆞ
라나묻ᄒᆞ믈보젼ᄒᆞ라
나논나라ᄒᆡ·은혜로닙
어시니맛당히죽오리
라ᄒᆞ대악쉬골오되혀
이죽으면내어ᄃᆡ로가
리오원권대ᄌᆞ치죽으
리라ᄒᆞ티니형이ᄇᆡ·ᄒᆞ
매스스로그집을블지
ᄅᆞ고다ᄆᆞᆺ싀ᄲᅡ뎌죽으
니라

進士尹穀潭州人德祐巳亥差知衡州待次家居湮被元
兵城將陷知事不可爲乃爲二子行冠禮人曰今何時行
此迂闊事穀曰正欲令兒曹冠帶見先人於地下耳既畢
禮具衣冠望闕再拜謂其弟岳秀曰可急去不可使尹氏
無後吾受國厚恩義當死岳秀曰兄既死弟將安往願俱
死城陷自火其廬擧家赴池死

詩 元兵南下肆頑兇力竭無由脫賊鋒爲子猶能行冠
禮平生義氣自從容　回頭北望拜君門自敘平生受
厚恩兄弟爭相投水死一家忠義動乾坤

숑나라ᄒᆡ양ᄒᆞ온ᄃᆡ이ᄒᆞ야
결파늑슈부ᄂᆞᆫ텬샹을
셰벼ᄅᆞᆯ드료에산ᄒᆞᆫ다고
몬도ᄂᆡ가ᄭᅩᆺ숭샹문텬샹
은오랑캐게잡히엿듸호
야을솜귀되죽지아니ᄒᆞ고
더라오랑캐쟝슈텬샹으
로ᄒᆞ여곰글을ᄆᆡᆼᄀᆞ라ᄒᆞ고숑
쟝셰걸의게보내여빌ᄅᆞ라
ᄒᆞᆫᄃᆡ문텬샹이ᄀᆞᆯ오ᄃᆡ내
나ᄒᆞᆫ늠으로관ᄒᆞ야질옷ᄒᆞ
쿰아ᄂᆞᆷ을권ᄒᆞ야님금을
비반ᄒᆞ라ᄒᆞ라ᄒᆞ냐오랑
캐쟝슈ᄀᆞᆯ오ᄃᆡ네나라히
망ᄒᆞ여시니네비록몸을
숙이나ᄒᆞ쉐예뉘알리오
텬샹이ᄀᆞᆯ오ᄃᆡ온나라히
망ᄒᆞ야시되ᄇᆡᆨ이슉졔
나라곡식을먹지아니ᄒᆞ
니인신이그몸을극진
이ᄒᆞᆯᄯᆞᄅᆞᆷ이라엇지후셰
예알며모ᄅᆞ믈의논ᄒᆞ
리오ᄒᆞ고판일을굴ᄒᆞ되



죽지아니ᄒᆞ니라 오랑
캐ᄌᆡ샹ᄇᆞ래믈어ᄀᆞᆯᄋᆞᄃᆡ
네나라히망ᄒᆞ게된ᄯᆡ예
두님금을세오니므ᄉᆞᆷ착
ᄒᆞᆫ일을ᄒᆞ엿ᄂᆞ뇨텬샹이
ᄀᆞᆯ오ᄃᆡ님금을셰워ᄡᅥ나라
도종묘를보젼ᄒᆞ미신하의
칙망이라님금셤기미아비
셤김ᄀᆞᄐᆞ니부뫼병이잇시
면비록죽게되여신들엇
디보기만ᄒᆞ고약ᄀᆞ음ᄉᆞ지
아니ᄒᆞᄂᆞ냐ᄒᆞ고죵시히
굽지아니ᄒᆞ디엽ᄉᆞ니옥에
가도앗더니인ᄒᆞ여죽으니
배되다텬샹이일죽옷
ᄯᅴ예의글을ᄡᅥ두엇ᄂᆞᆫ몸
을죽여인을일오옴은
공ᄌᆞ의말ᄉᆞᆷ이오삶을
블이고의를ᄎᆔᄒᆞ옴은ᄆᆡᆼ
ᄌᆞ의말ᄉᆞᆷ이라셩현의
글을닐거오ᄆᆡ비혼배무
ᄉᆞᆷ일인고이졔후의아
거의붓그리오미업
도다ᄒᆞ엿더라

祥興戊寅元張弘範至潮陽丞相文天祥被執吞腦子不死明年張至崖山令以書招張世傑文曰我不能扞父母乃教人叛父母乎張曰國亡矣殺身爲忠誰復書之文曰商非不亡夷齊不食周粟人臣各盡其心何論書不張改容送燕不食八日不死丞相孛羅問曰汝立二王做得甚事文曰立君以存宗廟存一日則盡臣子一日之責人臣事君如子事父母父母有疾雖甚不可爲豈有不下藥之理有死而已何必多言繫獄月餘再問不屈至元壬午賜死南向跪而死衣帶中有贊曰孔曰成仁孟曰取義惟其義盡所以仁至讀聖賢書所學何事而今而後庶幾無愧

詩 國亡家破見忠臣仰藥從容欲殺身重義輕生終不屈高名千載獨離倫 繫獄艱辛至月餘一身忠節不渝初衣中有贊辭深切無愧平生所學言

송이망ᄒᆞᆫ偭예
강등졔리ᄉᆞ벼
ᄉᆞᆯᄒᆞᆫ엿노샤방
득이ᄶᅡᆨ아ᄲᅧ호
다가패ᄒᆞ여돌
아나셜명을고
치고산둥의돌
어가니도젹이
방득의有물잡
아교져라방득
이창산셔라ᄒᆞ
노텰익수엿肩
니오랑캐참졍
벼ᄉᆞᆯᄒᆞᆫ노위텬
위방득을잡아
핍박ᄒᆞ여제나
라호로ᄭᅳ리가
려ᄒᆞ거ᄂᆞᆯ방득
이죽음으로ᄇᆡ

망ᄒᆡᄒᆞ고가지
아니ᄒᆞᆫ대원의
ᄌᆞᆯ오ᄃᆡ배텨리
ᄌᆞᆯ면엇지볼텨
족저아니ᄒᆞ연
ᄯᅡ구바독이ᄀᆞᆯ
오ᄃᆡ죽으미대
산의셔ᄃᆞᆼ오ᄒᆞᆯ좌
ᄂᆞᆫ외교렬억의
쉬가븨야올쥐
도잇ᄂᆞ니뻐아
적죽지아니ᄒᆞᆷ
온거외나라흘
다시회복ᄒᆞ고
겨홈이리니라
ᄒᆞ고드ᄃᆡ여스
ᄆᆞ날올밥올먹
저아니ᄒᆞ고ᄂᆞ
을만머ᄆᆞ인ᄒᆞ
여졸오니라

北軍攻饒州江東制置使謝枋得拒戰于安仁敗績變姓
名入唐石山元軍至信州鏤榜眼捕執妻李氏拘揚州謝
入蒼山寺處崎嶇山谷甲申大赦謝乃出時妻已變寓建
陽之驛橋戊子魏參政天祐朝京逼以北行謝不肯以死
自誓知不可免即不食魏與言坐而不對或嫚言無禮魏
讓曰封疆之臣當死封疆安仁之敗何不死謝曰程嬰杵
臼一死於前一死於後王莽篡漢十四年龔勝乃死死有
重於泰山輕於鴻毛蓋棺事定參政豈足以知此謝不食
二十餘日不死乃復食遂卧轎中渡采石復不食只茹蔬
果積數月困殆己丑四月初一日至燕京初五日死於驛

詩 推鋒陷敵志無成遁跡山林變姓名數月茹蔬終死
節凜然千載樹風聲　元兵跌宕力難當戰敗流離寓
建陽羞事二君輕一死名留竹帛更輝光

단화상은금나라
장쉬라몽고의군
시크게들어오거
화상이조원ᄒᆞ여
텬봉이되여도적
을쥐벼홈마다이
긔더니삼봉ᄉᆞ히
셔도로패ᄒᆞ니왕
상이적병을피ᄒᆞ
여갑히수년다가
도적이잠ᄭᅡ지난
후에나와불비ᄅᆞᆫ
오뒤나ᄂᆞᆫ금나라
대장단화상이라
잇ᄉᆞ바흘ᄭᅦ에어
즈러온군ᄉᆞ의슈
족으면사ᄅᆞᆷ이아
지못ᄒᆞ고나라흘
쥐ᄇᆞ리다흘ᄲᅥ시
며오ᄅᆞᆯ날명뵉히

주어믈하ᄅᆞᄒᆞ여
금샹게ᄒᆞ리라ᄒᆞ
더니도적이잡아
항복받으려ᄒᆞ거
늘화샹이항복디
아니ᄒᆞᆫᄃᆡ발목을
버히고입을ᄶᅵ여
귀ᄭᆞ지니ᄅᆞ되ᄌᆞᆼ
시히굴처아니ᄒᆞ
고피ᄅᆞᆯ흘리며ᄲᅮ
짓기ᄅᆞᆯ긋쳐디아
니ᄒᆞ고죽으니나
히마은ᄒᆞᆫ나히라
금나라히그통의
믈아ᄅᆞᆷ다이녀겨
증직ᄒᆞ고얼골을
븓여제ᄒᆞ게ᄒᆞ고
돌ᄒᆡ삭여그착ᄒᆞᆫ
일을긔록ᄒᆞ니라

正大五年蒙古兵入大昌原平章合達問誰可爲前鋒者
忠孝軍提控完顔陳和尚出應命沐浴更衣若將就木然
者以四百騎破八千衆御軍有方坐作進退皆中程式所
過州縣秋毫無犯每戰則先登陷陣疾若風雨諸軍倚以
爲重三峰之敗陳和尚走鈞州城破兵入趍避隱處殺掠
稍定乃出自言曰我金大將陳和尚也大昌原衛州倒回
谷之勝皆我也我死亂軍中人將謂我負國家今日明白
死天下必有知我者時欲其降斫足脛折之劃口吻至耳
噀血而呼至死不屈蒙古將義之酹以馬湩曰好男子年
四十一詔贈鎭南軍節度使塑像褒忠廟勒石紀其忠烈

詩 元兵闌入大昌原募應前鋒將虎賁四百能摧八千
衆先登奮勇似雷奔 難將抔土障黄流斫劃要降罵
不休天下果知明白死褒忠紀石表山丘

금나라이광황제ᄒᆞᆫ의
케[illegible]산ᄒᆞ여유관쳔이
라ᄒᆞᄂᆞᆫ집의터무미여
주고며졉의불올노흔
ᄒᆞ니가위다ᄯᅩ라나디붕여
뫼술ᄒᆞᆫ엿ᄂᆞᆫ강산이출노
미물표가다아니ᄒᆞ야ᄂᆞᆯ뫼
이자바물이골오ᄃᆡ놈이다
ᄂᆞᆫ아나거ᄂᆞᆯ비홀노이시
분엇지소강산이ᄭᅮ르오ᄃᆡ남
홈이여그ᄃᆡ주그지니나여과셔자
귀엇다가불ᄯᅥ지기ᄅᆞᆯ기ᄃᆞ
리냥금의허골올거두어무
븐후의주고리ᄒᆞ노라ᄒᆞᆫ대도
적이우선ᄆᆞ로더ᄃᆡ장ᄎᆞᆺ죽
귀되엿거든이버겹을의비

님금의ᄲᅧ를ᄆᆞᆺ무드리ᄒᆞᆯ
산이ᄀᆞᆯ오ᄃᆡ내죽지아니ᄒᆞᆫ젼
의엇지ᄎᆞ마님금의ᄲᅧ를ᄇᆞ
리리오만일님금의ᄲᅧ를
ᄆᆞᆮ무든후면내비록ᄎᆞᆷ
ᄎᆞᆷ이내혀주거도ᄒᆞᆫ이
업슬노다ᄒᆞᆫ대도적이
긔특이너겨허ᄒᆞ야ᄂᆞᆯ
니이에불ᄐᆞᆫ나모ᄆᆞᆺ새
ᄅᆞᆯ거두어ᄂᆡ블의ᄡᆞ
고두번졀ᄒᆞ고통곡
ᄒᆞ고물의ᄲᅡ디려ᄒᆞ거
늘도적이구ᄒᆞ여나ᄋᆡ
더니후의간곳즐모
로니라

蔡城破哀宗傳位承麟即自縊于幽蘭軒點檢內族斜烈
將從死遺言奉御完顔絳山使焚幽蘭軒火方熾子城破
大兵突入近侍左右皆走避獨絳山留不去爲兵所執問
曰汝爲誰絳山曰奉御絳山也兵曰衆皆走而獨後何也
曰君終于是吾俟火滅灰寒收瘞其骨兵笑曰若狂者耶
汝命且不能保能瘞而君耶絳山曰人各事其君吾君有
天下十餘年功業不終身死社稷忍使暴露遺骸與士卒
等耶吾果瘞吾君後雖寸斬不恨矣兵以告其帥奔盞曰
此奇男子也許之絳山乃掇其餘燼裹以弊衾瘞于汝水
之旁再拜號哭將赴汝水死軍士救之得免後不知所終

詩 國破君終衆散亡提身胡奈獨彷徨遺骸不忍委原
野掇拾慇懃瘞汝旁 左右蒼黃共避擒獨留收骨意
方深兵人固識奇男子終使安全得盡心

홈나라히ᄒᆞᆫ출ᄯᆡ에
싱나라군서 크게들
이오너섞쥐모든교
숄이핫복디아니ᄒᆞ
려업스되홀ᄒᆞᆯ모하
실슈ᄒᆡ술ᄒᆞ야독력
하ᄆᆡ구지직ᄒᆞ엿ᄯᅥ
니원빈시곰ᄒᆞᆫᄯᆡ니
체매청을다ᄒᆞ야ᄡᅡ
희빛식이전ᄒᆞᆫ매론
피쇼ᄂᆞᆫ다잡아군소
큰적이교진ᄒᆞᆯ징습
최재코블을노귀군
소를버녀려 교블엽
허셕터활을막어둔
고도적을기ᄃᆞ리나
적병이무수히드리
오ᄂᆞᆫ다라좃쳐ᄡᅡ학

살이진ᄉᆞᄒᆡ군신다
도와븐의돈매드난
저다하매ᄒᆞᆯ군노ᄑᆞᆫ倂
ᄒᆞ더올라교셕으로
倒혀노ᄋᆞᆯ구리오교ᄉᆞ산
벽을ᄊᆞ아도적을무
수히죽이고열이젼
ᄒᆞ매블의倂여들셕
죽으니원듬ᄉᆞ름이
ᄒᆞ나도항복ᄒᆞᆫ재업
더라시ᄐᆡ여하매나
치마은다ᄉᆞ시라그
倂사ᄅᆞᆷ이ᄉᆞ당을세
오ᄑᆞ허마바闕ᄒᆞᆫ
니가

金亡西州無不歸順獨洮河元帥郭蝦蟆堅守孤城元兵
攻之蝦蟆度不能支集州中金銀銅鐵雜鑄爲砲以擊攻
者殺牛馬以食戰士又焚廬舍積聚曰無至資兵日與血
戰軍士死傷者衆乃命積薪於州廨火既熾率將士於火
前持滿以待城破兵填委以入鏖戰既久士卒有弓盡矢
絕者挺身入火中蝦蟆獨上大草積以門扉自蔽發二三
百矢無不中者矢盡投弓劍于火自焚城中無一人肯降
者蝦蟆死時年四十五土人爲立祠

詩 可憐金末洮河帥獨守孤城力不支餉亡仍令焚積
聚終焉血戰死爲期　州廨纍薪勢已傾奮身鏖戰共
輕生闔城自焚無遺子千載流傳不朽名

보안불화ᄂᆞᆫ원나라
사ᄅᆞᆷ이라참디졍ᄉᆞ
벼슬을ᄒᆞ야강남의
쇼힝ᄒᆞᆯ셔교병ᄉᆞᄒᆡ
빌ᄋᆞ러노도적티우
량의장슈파샤화열
어번파ᄒᆞ고의도ᄅᆞᆯ
딕히엇ᄯᅥ니대명군
졍와리니불화ᄒᆡᆼ올
웅거ᄒᆞ야막아싸호
더니셩이함ᄒᆞ야장
ᄎᆞᆺ죽게되니그어미
두리고ᄒᆞ여곰오뎌
내듕요ᄅᆞᆯ냥권치못
ᄒᆞ게되엿ᄂᆞᆫ디라아
ᄋᆞᄃᆞᆯ희이시니맛당
히모친을봉양ᄒᆞ리
라ᄒᆞ고ᄯᅳ라가관재

안자셰니 대명군
자바미야 가니 블
쾌 골오뎌 나는 원ᄯᆡ
신하로 벼ᄉᆞᆯ이 놉
ᄒᆞᆫ지라 이ᄠᅢ 나라
이 망ᄒᆞ고 이에 니르
러 사니 살아 므엇ᄒᆞ
리오 ᄒᆞ고 ᄆᆞᄎᆞᆷ내 굴
치 아니ᄒᆞ고 죽으니
그 안해 ᄯᅩᄒᆞᆫ 그 아ᄃᆞᆯ
롤 안고 우믈의 ᄲᅡ지
니 쳡과 손ᄌᆞ와 두 아
ᄋᆞ 쳐와 죵들이 다 ᄲᅡ
뎌 죽으니라

至正十八年詔叅知政事普顔不花與侍御史李國鳳經
略江南至建寧陳友諒遣鄧克明來寇國鳳遁去普顔不
花曰我承制來此去將何之誓與此城同存亡耳拒戰六
十四日大敗賊衆明年召還授山東宣慰使守益都 大
明兵壓境普顔不花捍城力戰城陷平章保保出降普顔
不花還告其母曰兒不能兩全忠孝幸有二弟當終養其
母趍官舍坐堂上主將素聞其賢召之再三乃往既而面
縛之普顔不花曰我元朝進士官至極品事已至此何以
生爲竟不屈而死其妻阿魯眞抱其子投舍北井其女及
妾孫女皆隨溺二弟之妻各抱幼子及婢妾溺舍南井死

論 親承詔命撫南方敢愛微軀弃土疆國鳳何人潛遁
去普將城堡共存亡 忠孝誠難兩得全居官效死職
當然可憐妻子皆投井節義家聲萬古傳

박뎨샹은신라사ᄅᆞᆷ이
라셰에신라왕외아이
왜국의볼모잡히엿들
어과디오래니왕이닛
디못ᄒᆞ여심히보고져
ᄒᆞ거ᄂᆞᆯ뎨샹이왜국의
들어가왕의아ᄋᆞᆯ마
니빅예티와보내고왜
국의뎌죄ᄒᆞ니왜국왕
이뎨샹을가도고무리
ᄀᆞᆯ오ᄃᆡ네엇디왕ᄌᆞᄅᆞᆯ
도적ᄒᆞ야보내엿ᄂᆞ다
뎨샹이ᄀᆞᆯ오ᄃᆡ나ᄂᆞᆫ신
라신해라우리님금이
아ᄋᆞᆯ싱각ᄒᆞ므병이나
게되여시매도적ᄒᆞ여
보내엿노라왜국왕이
노ᄒᆞ여ᄀᆞᆯ오ᄃᆡ네감히
신라신해로라ᄒᆞ니너
ᄅᆞᆯ죽이리라ᄒᆞ고뎨샹
의발ᄭᅡ락가족을벗기

됴로받ᄃᆞᆫ비여놀나게
ᄒᆞ고뎨샹을도우ᄎᆞ로
ᄃᆞ로라ᄒᆞ고무리ᄭᅳ오
되ᄇᆡ뉘신헨다ᄭᅳ오뤼
선라신해로라任셜ᄲᅳᆯ
블여ᄫᅡᆯ와그우ᄒᆞ시오
고무로되베뉘실현다
뒤ᄒᆞ여ᄭᅳᆯ오뒤신라신
해로라왜왕이굴커아
너올ᄂᆞᆯ그랄고못ᄎᆞᆷ내
블의ᄎᆞᆯ와죽이니그안
ᄒᆡ뎨샹의죽을ᄃᆞᆺ쇼
놉흔뎡의올나왜국을
ᄇᆞ라며올며죽으니그
뷔겔홈은ᄃᆞᆯ슌방이
라

實聖王遣奈勿王子未斯欣質倭又遣斯欣兄卜好質高
句麗訥祇王立思得辨士往迎朴堤上請行至句麗說王
同歸王喜曰念二弟如左右臂今只得一臂奈何堤上拜
辭不入家至倭國紿言王殺我父兄故逃来倭王信之堤
上與斯欣乘舟若游玩者倭人不疑堤上勸欣潛還欣欲
偕歸堤上曰俱去則恐謀不成欣行旣遠倭王囚堤上問
曰何竊遣王子對曰臣是雞林臣欲成吾君之志耳倭王
怒曰言雞林臣必具五刑命剝脚下皮刈蒹葭使趨其上
問曰何國臣曰雞林臣又使立熱鐵上問何國臣曰雞林
臣倭王知不屈燒殺之妻率三娘上鵄述嶺望倭國哭死

訥祇初立念天倫辯士旁求得此人質弟歸来全二
臂新羅千載一忠臣　勸欣還國滯扶桑身被淫刑最
可傷哭望東溟妻又死至今忠烈更增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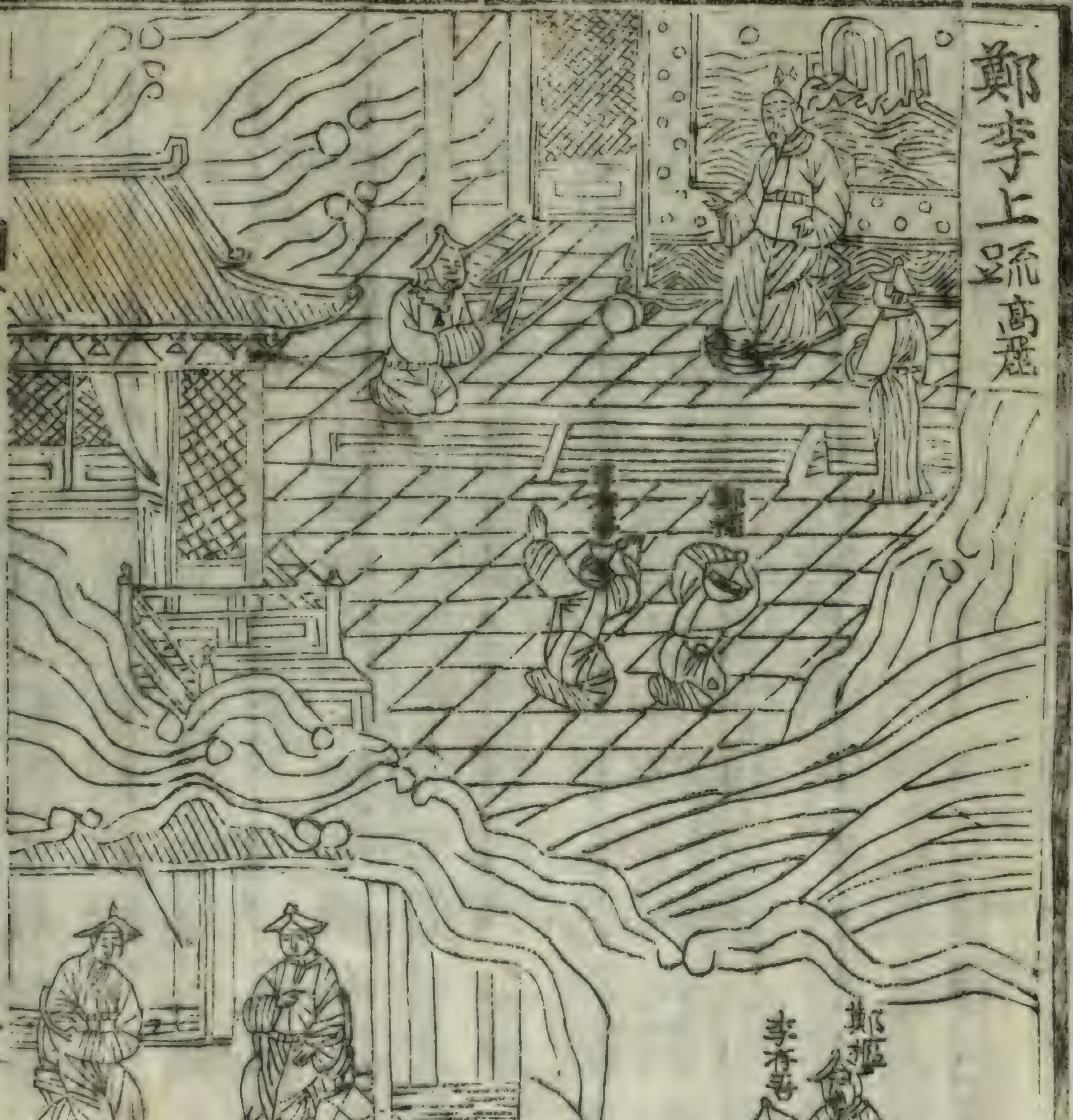
비령ᄌᆞᄂᆞᆫ신라사ᄅᆞᆷ이라
쟝슈김유신을조차ᄇᆡᆨ졔
와싸호ᄃᆡ니ᄅᆞ러시긔운이진
ᄒᆞ니김유신이비령ᄌᆞᄃᆞ려
닐오ᄃᆡ네능히긔특ᄒᆞᆫ꾀
를내여군심을격동ᄒᆞ게
ᄒᆞᆯ소냐비령ᄌᆞ졀ᄒᆞ오ᄃᆡ
맛당히죽음으로갑흐
리라ᄒᆞ고그죵합졀ᄃᆞ
려닐오ᄃᆡ내아ᄃᆞᆯ거진
이반ᄃᆞ시홈ᄭᅴ죽으려
ᄒᆞ리니네거진을ᄃᆞ리
고나의ᄲᅧ를거두어도
라가그어미ᄆᆞᄋᆞᆷ을위
로케ᄒᆞ라ᄒᆞ고즉시창
을들고ᄆᆞᆯ을ᄎᆡ쳐뎍진
을츙돌ᄒᆞ여두어사ᄅᆞᆷ
을죽이고인ᄒᆞ여싸화
죽으니그아ᄃᆞᆯ거진이
ᄇᆞ라보고ᄯᅩᄒᆞᆫ가죽고
져ᄒᆞ거ᄂᆞᆯ합졀이븟잡

아ᄃᆞᆯ오ᄃᆡ대인이날로
ᄒᆞ여곰구균을보젼ᄒᆞ
여도라가부인을위로
ᄒᆞ라ᄒᆞ여시니엇디아
비명을쉬ᄇᆞ리고여ᄆᆡ
ᄌᆞ량을ᄀᆞᆺ초련ᄒᆞᄂᆞ뇨
ᄒᆞ고몯고ᄭᅩᆺ비ᄅᆞᆯ잡고노
치아니ᄒᆞ니거진이ᄃᆞᆺ
지아니ᄒᆞ고칼로찹절
의ᄭᅮᆯ을치고ᄃᆞ라가ᄡᅡ
화죽으니합졀이ᄂᆞᆯ오
ᄃᆡ쥬인이죽으니내엇
디살리오ᄒᆞ고ᄯᅩ도라
가죽은지라신라ᄐᆡ쥬
금ᄧᅵ되로ᄂᆡ셔ᄒᆡ섬쳔ᄐᆡ왕이
ᄃᆞᆺ고ᄂᆞᆫ믈을흘리고ᄐᆡ
로영장ᄒᆞ고그집의ᄌᆡ
믈을만히주니라

善德女主十五年百濟將軍義直率兵分攻甘勿桐岑二城主遣金庾信率兵拒之苦戰氣竭庾信顧謂丕寧子曰事急矣子能奮激出奇以勵衆心乎丕寧子拜曰當以死報出謂奴合節曰吾爲國家死之吾子擧眞有志必欲偕死若父子幷命則家人疇依汝其與擧眞好收吾骨歸以慰其母心卽鞭馬橫槊突陣格殺數人而死擧眞望之欲赴合節曰大人令合節奉阿郎還家以慰夫人今子負父命棄母慈可乎執轡不放擧眞曰見父之死而苟存豈孝子以劍擊合節臂奔入戰死合節曰所天崩矣不死何爲亦交鋒而死軍士爭進斬首三千主聞之涕淚禮葬賜

詩 二城受敵勢將危 倉卒將軍力莫支 奮激出奇能勵衆 一身忠義永無隳
囑奴收骨慰家人 突陣橫戈不顧身 合節擧眞相繼死 宜加恩禮獎忠臣

〻의벼슬ᄒᆞᆫ통츄와
졍언니존오ᄂᆞᆫ고려
공민왕의신해라ᄯᅢ
에왕이죵놈신돈을
ᄉᆞ랑ᄒᆞ야나라졍ᄉᆞ
ᄅᆞᆯ어즐어이니통츄
니존오두사ᄅᆞᆷ이샹
소ᄒᆞ여돈의죄상을
니ᄅᆞ니왕이대로ᄒᆞ
여두사ᄅᆞᆷ을지바ᄃᆞᆯ
여ᄉᆡ거졀서ᄇᆡ에돈
이왕으로ᄃᆡ브리샹
의ᄒᆞᆫ가지로올나안
잣ᄂᆞᆫ지라존오ᄂᆞᆫ을
블읍ᄯᅥ돈을ᄭᅮ지ᄌᆞ
니돈이샹의놉인지
라왕이ᄃᆡ옥노ᄒᆞ여
두사ᄅᆞᆷ을자바쥐주
어무로ᄃᆡ뉘라ᄒᆡ니
ᄅᆞᆯ픔ᄋᆞ쳐샹소ᄒᆞ라
ᄒᆞ더뇨ᄃᆡᄒᆞ여ᄀᆞᆯ오
ᄃᆡ왕이못슬놈의ᄭᅴ



셩ᄉᆞᄅᆞᆯ맛뎌나라히
망ᄒᆞ게되여시매ᄎᆞᆷ
디못ᄒᆞ여호미라ᄒᆞ엿
지놈의골ᄋᆞᆯ쳐ᄅᆞᆯ나
리시ᄃᆡ오요대ᄃᆞ이
국마ᄂᆞᆫ존오ᄅᆞᆯ말배
여ᄒᆡ계ᄒᆡ의운사ᄅᆞᆷ을
대처라ᄒᆞ니권ᄂᆞᆫ존외
엿지저ᄅᆞᆯᄆᆞ디나라
도적놈을ᄂᆞᆫ박ᄒᆞ여라
시니엇지남올매히
리오ᄒᆞᆫ대드ᄂᆡ시죽이
고져ᄒᆞ거ᄂᆞᆯ니ᄉᆡᆨ이
위ᄒᆞ여쥬쳔ᄒᆞ야귀
향보내엿ᄃᆞ니존외
병들어죽을재예날ᄃᆡ
려아ᄂᆞᆫ오ᄃᆡ신ᄃᆞᆫ
이그져ᄉᆞᆯ앗ᄂᆞ나이
놈이죽ᄋᆞ야사죽을
이라ᄒᆞ고도로배누
어죽으니라

恭愍王方寵幸旽司議鄭樞正言李存吾上疏曰旽專國
政有無君心常騎馬出入宮門與殿下並據胡床雖崔沆
林衍亦未若此王怒召樞等面責時旽與王對床存吾目
旽叱之旽不覺下床王愈怒下獄曰是存吾怒目也命李
春富李穡鞫誘者樞曰見上委政非人將危社稷不得默
默豈待人誘旽陰使人誘存吾曰若引度復興元松壽則
可免存吾叱曰身為諫官第論國賊安有為人所指旽也
欲殺之穡謂春富曰祖宗以来未嘗殺諫臣若殺之續相
之名恐由是而不美春富白旽得减死謫外存吾以憂成
疾疾革使扶起曰旽尚熾乎旽亡吾乃亡反席未安而卒

詩 並據胡床敢抗衡專權擅政國將傾倘非一子忠誠
激冒死何人伏閣爭　王心蠱惑信姦回可鑑玄陵養
禍胎怒目一言真斧鉞賊旽從此膽先摧

뎡몽쥬ᄂᆞᆫ고려ㅣ가
망ᄒᆞᆯᄯᅢ졍승이라아
태조대왕이텬명과
인심이다도라가나
됴쥰과뎡도뎐과남
은등이 태조을
진심ᄒᆞ여도모ᄒᆞ니뎡
몽쥬크게근심ᄒᆞ야
뒤관으로ᄒᆞ여곰됴
쥰뎡도뎐남은등을
논박ᄒᆞ야귀향보내
계ᄒᆞ니의안대군과
와홍안군니졔등이
됴영규ᄃᆞ려닐티절
오ᄃᆡ니배왕실의큰
공이잇ᄉᆞᆫ날에취우
터ᄒᆞ게되여시니버
힘등이이ᄯᅢᄅᆞᆯ당ᄒᆞ

야힘을쓰지아니ᄒᆞ려ᄒᆞ나녀영ᄒᆞ드듸여길ᄒᆞ줄닷다가몽쥬를팁죡이니태죄들으시고크게노ᄒᆞ샤병들기예니르러ᄆᆡ시티니그후의 공됴대왕이즉위ᄒᆞ시매그튱졀을아ᄅᆞᆷ다여텨기샤시호을주어문튱공이라ᄒᆞ지나라 뎡몽쥬ᄂᆞᆫ 한호셩노 이포 라은

初崔瑩勸辛禑興師攻遼我 太祖擧義回軍復立王氏左使趙浚政堂鄭道傳密直使南誾等知天命人心所在欲推戴 太祖 洪武壬申三月 太祖墮馬守侍中鄭夢周以後道傳誾等同心輔翼令臺諫劾流之遣金龜聯李蟠就貶所將殺之義安大君和興安君李濟等白 太祖曰勢已急矣將若何 太祖曰死生有命但當順受而已和濟謂麾下趙英珪曰 李氏之有功王室人皆知之今爲人所陷後世誰知麾下士其無効力者乎英珪曰敢不從命英珪等要於路擊殺夢周 太祖大怒因病篤至不能言 恭定大王即位以專心所事不貳其操贈謚文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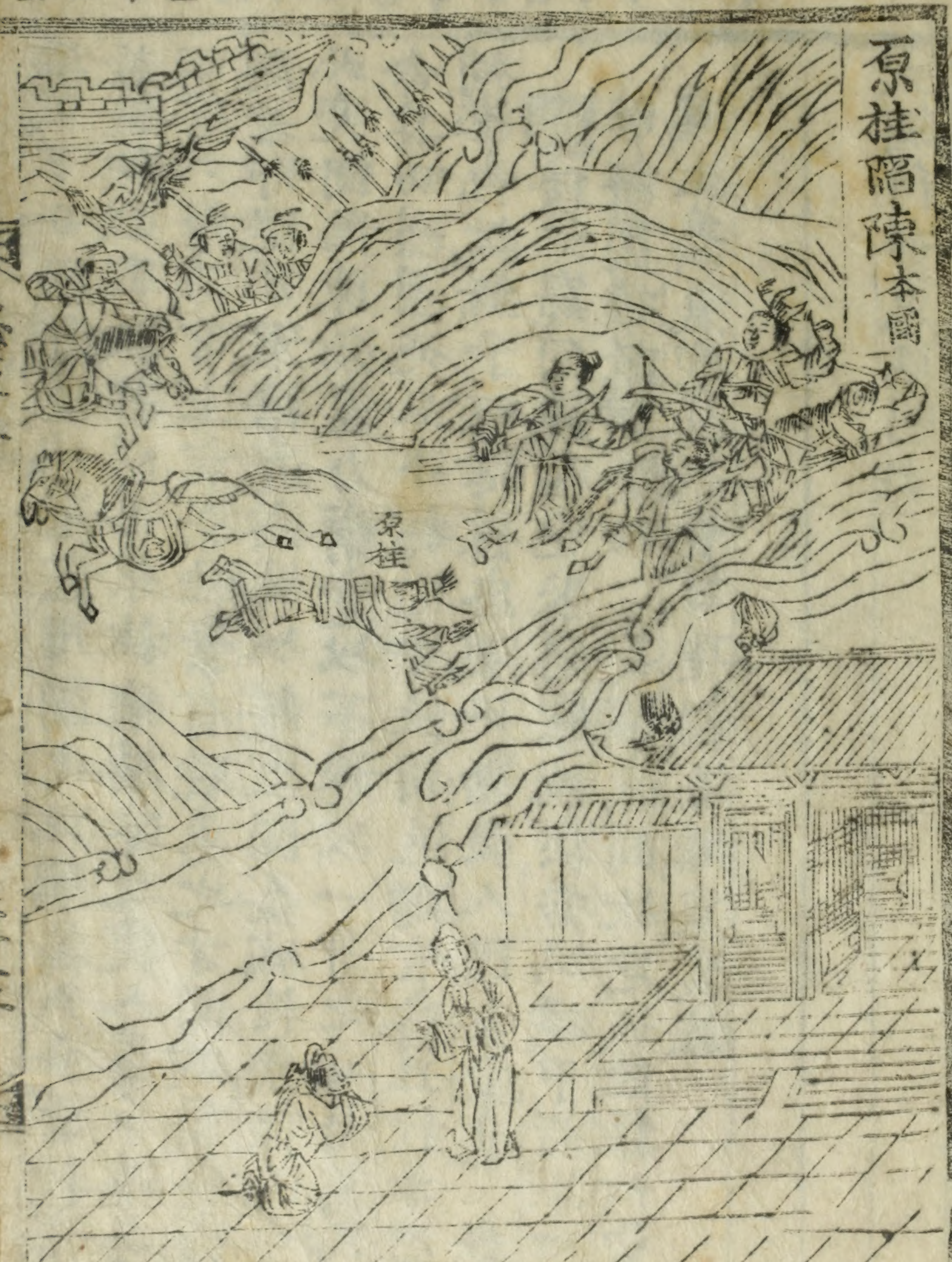
詩 麗季衰微泰運升群賢攀附揔飛騰從容就死烏川子落我朝鮮節義興 忠義由来不可堙平時砥勵且無人疾風勁草危難見須識高麗一介臣

길지ᄂᆞᆫ경상도션산
사ᄅᆞᆷ이니고려망ᄒᆞᆯ
때에주셔벼슬이라
이 태조대왕이
즉위ᄒᆞ샤매벼슬을
ᄇᆞ리고집의도라갓
더니 공졍대왕이
동궁의계실때에블
으시니저오ᄅᆞ나오니
대됴에엿ᄌᆞ와벼슬
ᄒᆞ이시니밧지아니
ᄒᆞ고글을올녀ᄀᆞᆯ오
되신하ᄂᆞᆫ두님금이
업ᄂᆞ니신을노하보
내여늘근어미를봉
양ᄒᆞ게ᄒᆞ쇼셔
상이대신ᄃᆞ려무러
ᄀᆞᆯ오샤ᄃᆡ관지졀을
딕ᄒᆞ여벼슬을아니

ᄒᆞ니엿지쳠치ᄒᆞ리
요되ᄒᆞ여골오되한
적에 공증이벼ᄉᆞᆯ
을아니ᄒᆞ거ᄂᆞᆯ광무
황뎨뎨ᄃᆞ을좃차노
하보내여계시니이
제결ᄌᆞ가기ᄅᆞᆯ구ᄒᆞ
거ᄂᆞᆯ뎨ᄆᆞ옴을거ᄉᆞ
리지마로쇼셔
상이허락ᄒᆞ여도라
보내시고그집을복
ᄒᆞ고ᄒᆞ후에좌ᄉᆞ간
을튜증ᄒᆞ시니라졀
[illegible]생호ᄂᆞᆫ야은이라

洪武己巳冬注書吉再棄官歸家歲在庚辰 恭定大王
在東宮召之再至落于 恭靖大王授奉常博士再啓
東宮辭職 恭定大王曰子之所言實關綱常但召之者
吾而官之者 殿下也宜辭於 殿下再乃上書曰再操
弟辛朝爲門下注書臣無二主乞放歸田里終養老母以
遂臣不事二姓之志明日 恭靖大王御經筵問知經筵
事權近曰吉再抗節不仕未審古人何以處之乎近對曰
嚴光不屈光武從之再若求去則不如使之自盡其心之
爲愈也 恭靖大王乃許歸仍復其家永樂戊戌 殿下
即位承 恭定大王命官其子宣德丙午贈左司諫大夫
詩 崧山王氣已成灰真主龍興泰運開尚憶舊君全一
節飄然歸卧子陵臺 亭亭高節凜秋霜直欲追蹤餓
首陽聖代褒崇彰義烈三韓億載樹綱常

김원계ᄂᆞᆫ울이나
라사ᄅᆞᆷ이라니탕
만호ᄒᆞ야실ᄯᅢ예
왜적이쉰쥬을에
위ᄡᅡ니원계군ᄉᆞ
ᄅᆞᆯ거ᄂᆞ리고쉰쥬
로가셔구완ᄒᆞ니
왜병이패ᄒᆞ여ᄃᆞ
라나거ᄂᆞᆯ원계이
긔믈타侯차적던
듕의돌입ᄒᆞ엿다
가도적의해ᄒᆞᆷ배
된지라뒤관이상
소ᄒᆞ여니무되원
ㅣ본뒤효용ᄒᆞ지
죄잇습티니몸을
도라보디아니ᄒᆞ
고외로온군ᄉᆞ을
거ᄂᆞ리도적을믈



너치고츙돌ᄒᆞ여
깁피들어갓다가
힘이궁진ᄒᆞ야모
ᄎᆞᆷ내죽으니ᄒᆞᆫ몸
의죽으무로ᄡᅥ만민
의목숨을밧고왓
ᄂᆞᆫ지라그공이이
희롯ᄒᆞ오니맛당
이판쟉을류증ᄒᆞ
고졔ᄉᆞ셜곳의ᄉᆞ
당셰오고ᄌᆞ손을
벼솔ᄒᆞ이여훗사
ᄅᆞᆷ을권쟝ᄒᆞ염즉
ᄒᆞ니이다ᄒᆞᆫ대
샹이그리ᄒᆞ라ᄒᆞ
시니라

洪武丁丑五月倭賊寇宣州圍之泥城萬戶金原桂率兵
赴援倭賊戰敗解圍去原桂乘勝逐之突入虜中遂爲賊
所害六月諫官上言原桂素有驍勇之才聞賊圍宣奮不
顧身即提孤軍倍道疾馳以解重圍全城於幾陷追亡逐
北突衝陷陳旁盡力窮竟以不振以一身之死易萬民之
命其功烈烈死且不朽乞令攸司追贈官爵且於本處立
祠奉祀敍錄子孫奬慰忠魂以勸後人國家幸甚 教可

詩 倭奴窺伺肆頑兇來寇宣城疾若風鐵甲將軍心膽
壯解圍摧敵樹邊功 長驅遠鬪救危城臨難何曾愛
此生義氣凜然忠貫日 聖朝追贈重襃旌

三綱行實忠臣圖 終